



겨자씨.

거룩한빛
광성교회
안양시안양로15길15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3
SPRING
VOL.46

08 인터뷰 광승현 위임목사

‘홀로’와 ‘함께’가 균형을 이루는 삶 추구해야
요람에서 천국까지 교회가 ‘함께’

33 2023 특별기획 리더에게 길을 묻다②

길을 묻다 - 다음세대
한국기독학생회(IVF) 대표 정재식 목사



찔레

| 문정희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 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 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 시인
· 시집 『내 몸속의 새를 꺼내주세요』, 『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 등
· 정지용문학상, 목월문학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겨자씨.

C.O.N.T.E.N.T.S

02 PROLOGUE 찔레	32 조금 특별한 예배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었네	60 WE 청년부, 다시 그 자리로
04 VISION 23 그리스도의 부활	34 조이풀장년부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62 100도 나는 목수로 살기 위해 호주로 간다!
05 믿음·소망·사랑 선교, 더 깊은 연결	36 크리스천 코칭 한종진 장로 우리 교회 코칭 사역 이야기(1)	63 문화산책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희자 자연 속의 은혜	38 성경 속 인물 초대 맛디아(Matthias)	64 COVER STORY 여행에서 만난 풍경
07 2023 SPRING Special Theme “사랑한다”고 말하는 봄, 봄 되세요	39 2023 특별기획 리더에게 길을 묻다③ 길을 묻다 - 다음세대	65 겨자씨툰 머스타툰
08 테마 인터뷰 광승현 위임목사 요람에서 천국까지 교회가 ‘함께’	44 학생 기자 수첩 최아인 친구 인터뷰 - 설렘과 기쁨	66 명작 Review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3 2022 선한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46 학생 기자 수첩 이하음 열정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신혜인	68 영화 이야기 WAR ROOM - 기도의 힘
14 선교지 밀알 태국 이국찬 선교사 치앙마이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48 꿈담 초등1부 “하나님 자녀로 학교생활도 잘할 거예요”	70 여행, 이야기를 담다 세 개의 선을 넘어 판문점을 거닐다
16 THE 희망나눔 김의태, 차미정 집사 부부의 행복한 섬김은 믿음의 유산	49 꿈담 초등6부 “특별하고도 소중한 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봐요”	72 편지 이경희 권사 음식 가득 싣고 가 고향 청진에서 마을 잔치 열어 주고 싶어요
18 포커스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③	50 꿈담 중등부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등부 침낭 나눔	74 함께 읽고 싶은 글 부모
19 포커스 정서영 임상심리전문가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	51 꿈담 고등부 빛나라 고등부, 빛나라 다음세대 자녀들이여!	75 캘리그라피 형통
21 포커스II 심혜진 심리상담전문가 “혹시, 나도 결정장애?”	52 청년광장	76 KS 단신 잘막하게 전하는 교회 소식
24 찰칵포토 이남경 집사 이스라엘 & 요르단 성지순례	54 HOT ISSUE 청년부 필리핀 비전 트립 필리핀 비전 트립 피스 메이커 이야기	78 크로스로드
28 4월의 향기 한요한 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끈 삶, 말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56 청년부 4인 필리핀 비전 트립 간증문 김민서, 김주원, 박주현, 이지웅	80 꿈꾸는 다음세대(제1교육위원회) 18개 팀을 소개합니다
30 형제교회를 찾아서 교하광성교회		82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08



24



39



60

Big News Good News |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 부활의 의미

2023년 4월 9일은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자 인간임을 보여 주는 사건이며
나아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19]



'2022 꿈담 부활절 계란 꾸미기' 고솔 작(초등부)



2023년 교구별 선교지 방문의 해 선교, 더 깊은 연결

2023년은 거룩한빛광성교회 교구별 선교지 방문의 해입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 7월까지 12개 교구 155명의 성도들이 교구별 지정 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 교육, 미용, 청소, 음식 등을 나누며 선교 현장 곳곳을 돌아봅니다.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을 안고 떠나는 155명의 '가는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교구	선교사	파송국가	교구 목사	선교 일정
1	윤형진/차명숙	스리랑카	김은찬	6월 1일~6월 9일
2	김성식/이미경	필리핀	차광욱	7월 6일~7월 10일
3	송성진/배명희	대만	이석희	5월 29일~6월 2일
4	이병은/노영순	잠비아	최종운	5월 25일~6월 3일
5	문병수/강영미	베트남	나형빈	5월 25일~5월 29일
6	정준/하은주	필리핀	문상원	5월 18일~5월 23일
7	김한주	우간다	김만석	6월 28일~7월 7일
8	김상태/김옥희	필리핀	박석순	6월 12일~6월 16일
9	심일한/정해정	일본	김민석	6월 8일~6월 12일
10	최덕신/김주미	일본	문은배	6월 8일~6월 12일
11	이진우/조정빈	필리핀	김종인	5월 25일~5월 30일
12	변영천/임현숙	르완다	김현준	5월 30일~6월 8일

자연 속의 은혜

글 이희자(시인)

오래전, 양수리 근처 산 입구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주 오가는 길이 아니어서 인가도 멀었지요. 도심에서는 소음이 되기도 하는 흔한 자동차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니 적막 속의 오두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은, 이른 봄이 되면 연둣빛 어린 풀잎을 시작으로 이름을 다 불러 줄 수 없는 나무와 풀들이 나를 찾아 주는 반가운 손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벚꽃과 구별하기 힘든 살구나무의 흰 꽃들이 바람이라도 불면 쏟아지는 꽃비가 되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살구나무 아래서 꽃비를 맞으며, 마주 보이는 숲길을 걸어 누군가 올 것 같은 기대감에 가슴 설레기도 했지요. 하지만 꽃피는 기간은 짧아 설렘도 잠시였다가 꽃은 어느덧 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노랗게 익은 살구는 해를 거르지 않고 가지가 휘도록 열려 떨어지는 열매를 줍는 일조차 힘들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든 숲속의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특별히 나를 찾아오는 이는 없었지만 산밤나무가 유난히 많은 산은 주말이면 알밤을 줍는 외지 사람들로 온 산이 술렁거렸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 일이지만, 숲속 외딴집에서 혼자 살면서

‘혼자가 아닌 듯’ 넉넉함을 느꼈던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선물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우리가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숲은 있으나 황폐하여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밀림이 될 것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 그때의 산에는 나무가 적었습니다. 아니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황토 흙이 흘러 내려오는 붉은 민둥산이었지만 이즈음의 산을 보면 뽕뽕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옛날의 민둥산은 전혀 상상할 수 없으니, 누군가 그 산을 지키며 가꿔 온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소중한 숲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무지한 마음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이라 해도 가꾸고 지켜 주지 않으면 결코 보기 좋은 숲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물 밖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연못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 시절, 자연이 주는 위로와 친근함은 작은 것을 서로 나누는 이웃의 정을 넘어, 숨겨 놓은 보물 창고의 문을 나 혼자 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2023 SPRING Special Theme

“사랑한다”고 말하는 봄, 봄 되세요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¹⁰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¹¹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9~11]





곽승현 위임목사

‘홀로’와 ‘함께’가 균형을 이루는 삶 추구해야

요람에서 천국까지 교회가 ‘함께’

글 전영의 기자 / 인터뷰 사진 조희성 기자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축적된 노인의 지혜는 도서관 하나와 견줄 만큼 소중한 보물과도 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의 운신 폭은 좁아진다.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곽승현 위임목사는 모든 교인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활기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니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1인 가구’, ‘혼소풍’, ‘혼밥’ 등 ‘홀로’ 삶을 영위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전통적 가정의 모습은 해체되고 별거와 졸혼, 이혼 등의 형태로 부부 결속력 또한 흔들리고 있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곽승현 위임목사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 ‘다음세대’, ‘3040세대’에 이어 ‘시니어 세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곽승현 위임목사. 모든 교인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활기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니어 사역을 강화하고 있다

시니어여, 다시 뜨겁게 비상하라

첫째도, 둘째도 ‘다음세대’였다. 2019년 부임해서 지금까지. ‘다음세대 세우기’는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승현 위임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을 아끼지 않았고, 그 일환으로 교회 내 ‘꿈담연구소’를 발족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비상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했다.

‘다음세대 세우기’와 더불어 주력했던 ‘3040세대 세우기’ 또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조이풀장년부’에서 훈련받은 3040세대가 교회 곳곳에서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젠 ‘시니어 세우기’다. 올해 박승현 위임목사는 ‘시니어 사역’을 확대했다.

시니어를 한마디로 규정하긴 어렵다. 보통 노인으로 해석하는 시니어에 대한 기준은 각 나라, 문화권마다 다르다. 지난해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로 나왔다.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다. 이는 퇴직 후 일선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이 70에 사진작가가 된 꽃할매, 55일간의 부부 은퇴 여행에서 여행 작가의 꿈을 발견한 시니어, 그림 그리는 65세 편의점 알바생 등 은퇴 후에도 ‘할 거리’를 찾아 인생 2막을 활력 있게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중장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거룩한빛광성교회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노아스쿨’이 있지만 취미 활동과 식사, 여행 등 친교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출범한 시니어 프로그램은 성격이 한층 확장됐다. 친교와 섬김 및 자기 계발을 함께 꾀해 시니어들이 공동체 안에서 움츠리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찾고, 또 ‘시니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교회 곳곳에서 왕성하게 봉사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크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 사역 현장에서 물러나 쓸쓸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니어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뒤로 물러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발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섬김의 텃밭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시니어의 나이에 맞는 사역이 있습니다.”



1. 짝수 달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장로조찬기도회. 시무장로에서 은퇴한 사역장로들이 주축인 장로조찬기도회는 ‘멈춤’ 없는 섬김의 현장이기도 하며, 박승현 위임목사가 올해 추진하는 ‘시니어 사역’ 강화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2. ‘비밀언덕’ 청년들에게 대학 입학 축하 장학금을 전달한 박승현 위임목사. ‘비밀언덕’은 정성진 목사의 크로스로드 사역 중 하나로 보육원 보호가 종료돼 독립한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광성파크골프선교팀’ & ‘아보트학교’

직분에서 은퇴했어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교인의 마음이다.

‘광성파크골프선교팀’과 ‘아보트학교’는 그런 열망을 반영하여 만든 시니어 프로그램이다.

광성파크골프선교팀은 지난 3월 발대식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 중

이다.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 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근감소증과 우울증 예방에 좋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교회 내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파크골프를 매개체로 하여 교인 간의 교류와 건강을 챙기며 지역 사회의 중장년층을 끌어안은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다.

4월 8일 개강을 앞둔 ‘아보트학교’는 시니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시니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동안 나이 때문에 멈췄던 것을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인생 2막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 목표다. 시니어들이 그들의 신앙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일원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광성파크골프선교팀과 아보트학교는 시니어들이 교회 안에서 꿈꿔온 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립되지 않고 더불어 삶과 신앙을 영위하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동행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형 사역자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 박승현 위임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추모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하늘문 추모관’의 수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승현 위임목사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교인들을 교회가 예우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요람에서 천국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

‘홀로’와 ‘함께’는 상호보완적

최근 ‘1인 가구’, ‘혼소풍’, ‘혼밥’ 등 우리 사회는 ‘홀로’ 삶을 영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어느덧 ‘홀로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로문화’는 ‘더불어’ 꽃밭을 이루는 기독교 정신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박승현 위임목사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왜 사람들은 홀로 있고 싶어 할까요, 편하기 때문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홀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인이라면 ‘홀로’도 잘 있고, ‘함께’도 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홀로’는 잘해도 ‘함께’는 잘하지 못합니다. ‘홀로’만 추구하다 보면 삶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박승현 위임목사는 ‘홀로’를 통해 ‘함께’의 소중함을 배우고, ‘함께’

를 통해 또 ‘홀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홀로’와 ‘함께’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행복한 가정’

최근 우리 사회는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통 가정의 모습이 해체되고 있다. 또 별거, 졸혼, 이혼 등의 형태



3. 태국 람뽕드림교회. 맨 앞줄 양집사(노란색 옷)는 바로 옆 파티야 전도사를 전도한 후 4년 동안 파출부를 하며 파티야 전도사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승현 위임목사는 태국 선교지 탐방 중에 듣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목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4. 작은교회 다음세대 파송선교사들과 함께.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린광성교회, 은혜의빛광성교회, 세계로교회에 다음세대 선교사를 파송하여 작은교회가 교회학교를 세워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 부부 결속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학교와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이 흩어져 살기도 하지만, 가정 해체로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덜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들어 보면 모든 상황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독신의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용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승현 위임목사는 이혼한 친형이 홀로 아이들을 기르면서 겪는 어려움과 조카들의 상처를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인식한다며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거듭 강조한다.

인간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태풍이 들이닥친다. 발생 원인과 기압, 풍속 세기도 다 제각각이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태풍이든 삶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종종 다정하게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노부부를 본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햇살 속을 한 발 한 발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참으로 평온해 보인다. 다리가 아프면 벤치에 앉아 쉬었다가 다시 손잡고 일어서는 그들의 알콩달콩한 동행은 저녁노을처럼 곱다. 꽃과 나무가 만발한 공원을 함께 거닐기까지 그들도 거센 태풍을 여럿 맞았을 것이다. 태풍의 한가운데를 지나 고요에 이른 노부부의 인생 비결은 무엇일까. 숨새처럼 태풍을 만나면 자신의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태풍에서 이는 바람을 타고 나는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일까.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더 많은 배려와 용납’이 결코 오르지 못할 태산은 아닌 듯싶다.



목양실 내의 기도실.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기도실을 찾아 두 손을 모으는 곽승현 위임목사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2 선한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2022 성탄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성탄절 헌금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지정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노인, 노숙인, 청년, 선교지 등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1.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15,602,920원
	2.장애인		
	3.다문화		
	4.노인		
	5.노숙인		
기관 지원	6.청년	청년창업 재정	1,470,000원
	7.선교	선교지 지원금	10,736,480원
	어린이재단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 긴급 구호	3,000,000원
크로스로드:비빌언덕 사역	کمپ션	해외아동 긴급 구호	3,000,000원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사역		9,600,000원
개인 지정대상자			32,200,000원
교구/부서 추천 교인가정			38,000,000원
합계			113,609,400원

2022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총결산

2022년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절기 헌금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실시했다. 네 절기를 통하여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낸 금액은 총 534,208,888원이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총액
183,691,480원	110,467,408원	126,440,600원	113,609,400원	534,208,888원

치앙마이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글 이국찬 선교사(태국)



☞ 치앙마이드림교회를 탐방 온 신학생들과 교수

싸왓디클럽!

싸왓디클럽!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파송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13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국찬 선교사입니다. 2003년 1월, 중국에서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20년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치앙마이에 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치앙마이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는 골프와 휴양 목적의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오늘날 태국 개신교의 중심은 수도 방콕이 아닌 치앙마이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태국기독교총회(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CCT) 역시 교단 본부는 방콕에 있지만, 핵심 부서는 대부분 치앙마이에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립교회를 위하여

태국은 1828년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어 현재 195년의 선교 역

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국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며, 태국교회 역시 한국교회와 비교해 볼 때 성장이 더디고 무척 연약합니다. 따라서 태국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도 핵심적인 선교 사역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태국교회를 건강하고 자립 가능한 교회로 세워 나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고 태국의 복음화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가 스스로 교회를 세운 후 태국인들을 전도하여 건강하게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이미 전국적인 교단이 조직되어 있고, 미약하지만 처처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선교사가 교회를 세워 직접 목회를 하기 보다는 이미 세워져 있는 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입니다.

치앙마이드림교회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국교회를 건강하고 자립 가능한 교회로 세워 나가려면 태국교



1



2

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선교사가 선교사 개인 자격으로 태국 교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태국교회에서 한 부분을 맡아 사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이면서 지역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태국교회와 다방면에 걸쳐 협력하면서 건강한 태국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앙마이드림교회를 13년 동안 목회하게 하셨고, 팬데믹 기간이던 2022년 5월부터는 태국 최초로 태국인 목회자인 뿌라송 목사님과 치앙마이드림교회에서 공동 목회와 공동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치앙마이드림교회는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인 저와 태국인 목회자가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동등한 담임목사의 리더십으로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태국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드림 아카데미 사역

치앙마이드림교회의 비전은 한마디로 태국 선교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도시교회를 세워 나가는 모델입니다. 현대 선교에 있어서 도시 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고, 농촌이나 고지대 산마늘에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시로 몰려듭니다. 따라서 치앙마이드림교회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한국인과 태국인이 연합하고, 타이족과 소수 민족이 연합하여 젊은이 중심의 건강하게 성장하는 도시교회를 세워 나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와 더 나아가 태국 교단에서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둘째, 교회 개척 후보자들을 양성하여 태국 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모델입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척자를 훈련하지 않고 교회 건물만 짓게 되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회의 추천과 협력을 받아 치앙마이



3



4

1.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이 구호 물품을 받은 후에 미얀마 국경에서
2. 치앙마이드림교회 태국인 성도 10명이 세례식하는 모습
3. 그레이스홀고아원에서 학생들에게 물품을 선물해 주고 함께 노는 사진
4. 그레이스홀고아원에서 학생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

드림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개척을 위한 후보자들을 훈련하는 ‘드림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 태국의 주종족인 타이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척된 교회는 지역의 거점이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서로 돌보고(멘토링) 네트워킹하여 건강하고 자립 가능한 교회로 세워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과 태국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태국 선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태 연합교회를 통해 태국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치앙마이드림교회를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행복한 섬김은 믿음의 유산

글 전영숙 기자



교회 섬기는 일에 톡톡 뭉친 가족이 있다. 엄마, 아빠가 섬기는 곳에 자녀들이 늘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니 엄마, 아빠의 섬김이 아이들로 인해 시작되었다.

“지금은 열세 살이 된 큰 딸 다숨이가 ‘어와나’를 시작할 때 아내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활발한 편이 아니라서 에너지 넘치는 남자아이들과 같이하는 게 영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함이 와 닿고 마음이 열리면서 진심으로 임하게 됐죠.”



⌘ ‘어와나’에서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김의태 집사



아빠가 되고 나서 ‘아빠 될 준비가 되었나, 본이 될 수 있나, 잘 키울 역량이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김의태 집사는 다숨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 ‘아버지학교’도 섬기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조이풀장년부 부부 리더로 섬기게 되면서 아내와 발을 맞추고 있다. 섬김에 있어서 아내 차미정 집사의 열정은 김 집사가 아내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할 정도. 원래 몸이 약해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섬김 이후 더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됐으니 말이다. 얼마 전 MBTI 검사를 하며 차 집사 스스로도 놀랐다.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외향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성경 공부든 봉사든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없어요. 권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또 봉사하고 싶어도 ‘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떤 봉사를 하지?’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전공한 것이나 잘하는 걸로 봉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할 게 많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라는 말에 시작한 카페 ‘풍경’ 봉사는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마더와이즈’ 섬김도 4년 차.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부부다. 일곱 살인 막내 유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자 마더와이즈를 함께 하게 됐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계약만 남았을 때 일이 틀어지면서 풍경에 오게 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드렸다.

물론 섬김이 많다 보니 힘든 건 사실이다. 풍경 봉사는 사람이 적어 주 4일이나 하고 있고, 조이풀장년부 리더를 맡으면서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서 산다. ‘사역자도 아닌데 왜 월요일이 힘들까, 회사 일보다 섬김이 더 힘들다’라는 말을 푸념처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에 행복과 감사가 넘친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 정말 달라요. 지인들과 힘든 상황을 나눌 땐 그냥 털어놓는 것으로 위로를 받게 되지만,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힘든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에 느끼고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고요.”

어찌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들 부부 역시 사람이었다. 신혼 초엔 육아 전쟁으로 많이 싸웠던 것. 표현이 서툴러 서로 오해하기 일쑤였는데, 마더와이즈 교육이나 아버지학교를 통해 ‘내가 힘든 것’만 봤던 것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됐다고. ‘남편은 혼자였겠구나,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에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맞다는 걸 깨달았단다. 섬기는 자리 그 어디든 자녀들과 함께하며 아이들 성장에 따라 자신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으며 “가정예배를 드릴 때 둘째 예은이와 막내 유진이가 기도 제목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놀랐어요. 남편이 기도 일지를 쓰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라며 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재취업을 생각할 때 고민 끝에 남편이 했던 ‘자녀 양육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는 차 집사는 자녀 셋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거라고 말한다. 몸이 약해 첫 아이 출산 후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할 정도였지만 건강하게 아이 셋을 낳게 된 지금 ‘세 아이가 기적’임을 안다. 공동체의 나눔 중에서 ‘어떻게 고난과 힘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라고 의심했던 것도 스스로 겪고 보니 가능한 일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줄일 수가 없다.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임을 확신하기에.

이 시간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 분명 아이들이 어릴 땐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교회 봉사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외치며 떠나가고 남편은 그냥 예배 자리만 지키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키워 가고 있는 이들 부부의 행복한 섬김이 더욱 부럽다.



1. 마더와이즈 총무를 맡으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차미정 집사
2.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 고심하며 섬기게 된 아버지학교
3. 조이풀 마을모임에서 보다 더 깊은 나눔을 하고 있다
4. 카페 ‘풍경’에서 봉사하고 있는 차미정 집사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 ‘마음’ 마음 근육 튼튼하게 키우기 2



— 자기사랑 나에 대한 온정(溫情)을 유지하며, 내가 나의 지원자 되어 주기

정서영

— 결정장애 극복하기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라

심혜진

자신을 사랑하라

나에 대한 온정(溫情)을 유지하며, 내편이 되어 주기

글 정서영 임상심리전문가(이화가족상담센터)



Love Yourself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제가 싫어요. OO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항상 웃고 누구나 좋아할 만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깐 별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돼요. 솔직히 저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뭐든 자신감이 없고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아요”라고 호소하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심지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들끼리도 자존감 및 자기에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우선

임상심리학 관점에서 ‘자기애’는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자기에 대신 ‘자기사랑’이라고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선 뭐든 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처럼 자기를 좋아하고 예뻐하는 것을 자기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뭔가 못했다고 생각될 때면 ‘또 이러네. 나를 사랑해야 하는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라고 자책합니다. 실수나 실패, 불안함, 우울감, 외로움 등 이런 자연스러

운 고통에 더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는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한 가지 고통만으로도 힘든데 고통이 배가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사랑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아이를 봤을 때 드는 ‘안타까운 감정’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는 것을 그저 받아 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거나 다른 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옳고 그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나조차 그 모습이 틀렸다, 모자라다 지적하면 삶은 너무나 외로워집니다. 내가 약하고 힘에 부칠 때, 나를 돌봐주고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주며 위로하는 것이 자기사랑의 기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몰두하지 말고 흘러보내야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한다, 꼭 이뤄야 한다, 잘해야 한다’는 언어 규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사랑도 무언가 열심히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으로 나를 좋아하고, 예뻐하고, 칭찬하고,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만 던지는 등의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잘했다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뭘 해도 ‘열심히 했다/아니다, 잘했다/못했다’는 흑백 논리의 판단에 빠지기가 쉬울 뿐입니

다.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만큼 나를 예뻐하지 않았으면 나는 자기 사랑을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최근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망상 덩어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생각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필요한 순간에 꺼낸다고 합니다. 즉, 원치않는 생각과 감정이 불쑥 찾아오고, 내가 원할 때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나의 의지와 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뇌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생겨난 자동적인 반응이라서,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내가 그만 슬프고 싶다면 슬픔을 멈추고 그렇게 껴다 컸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는 정답이 없고, 어떤 것이 찾아와도 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과 감정이 유유히 지나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간혹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평소보다 더 오래 내 곁에 얼렁거릴 수도 있지만 내가 나약해서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라, 그저 뇌가 자기 할 일을 하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아, 뇌가 제 기능을 하고 있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 사이의 간격을 약간 늘려놓는다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언가 잘못했다거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할 때면 잠시 물러나 ‘지금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드는구나!’ 알아주고 내가 가려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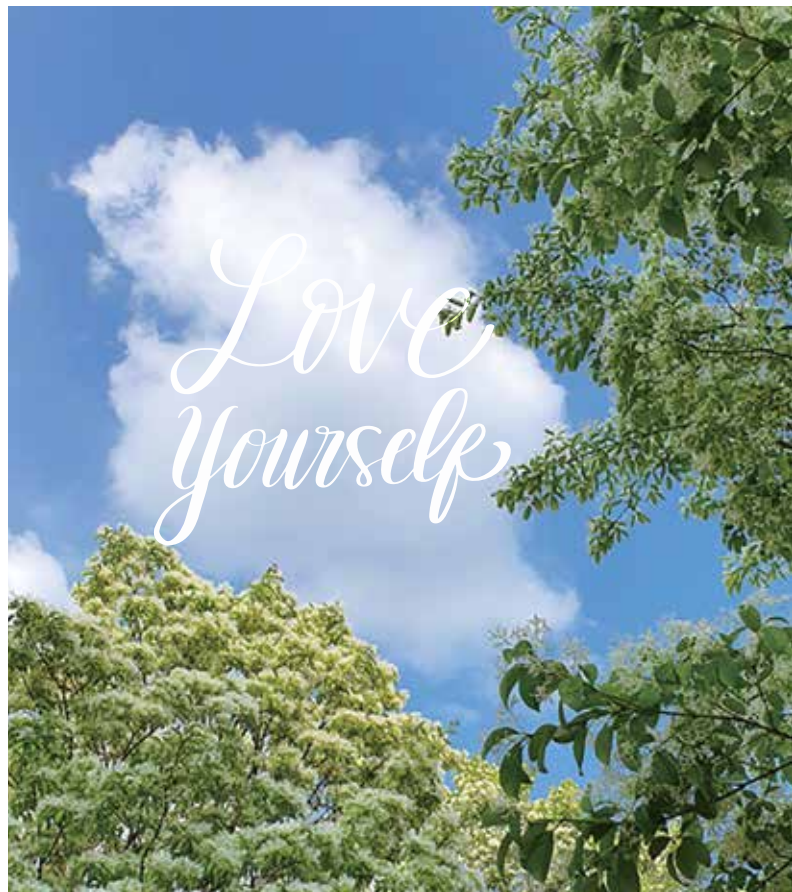
마음챙김 명상으로 소중한 ‘자기사랑’ 키우기

생각 및 감정, 나와외 관계 변화를 위한 행동은 운전 연습처럼 자주 연습하고 습관을 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꼭 필요할 때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할 수 있는 연습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추천합니다. 이는 신비주의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되는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자리에 앉아 동전이나 나뭇잎, 내앞에 놓인 커피잔, 창밖의 구름 등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며 눈을 감고, 몸의 감각과 움직임, 호흡, 들리는 소리, 냄새, 공기의 느

낌, 지나가는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매일 해도 좋고 가끔 해도 좋습니다. 수십 분씩도 할 수 있고 30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아무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각을 바라보고, 생각과 감정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아주길 반복합니다. 잠시 그 감각들을 되새겨 보는 것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원한다면, 그 감각들을 기록해 놓아도 좋습니다. 기록하고 싶지 않다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언어나 생각, 감각, 감정 등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의 일부만을 반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습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나를 향한 온정을 유지하며, 내가 나 자신의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사랑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저와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자기사랑 경험입니다.



뭉게구름이 동동 떠 있을 때에도, 비구름으로 온 하늘을 뒤덮을 때에도, 구름은 언젠가는 흘러가고 하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맑을 때에도 흐릴 때에도, 나 자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생각과 감정은 지나갑니다

혹시, 나도 결정장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라

글 심혜진 심리상담전문가(국민대 학생생활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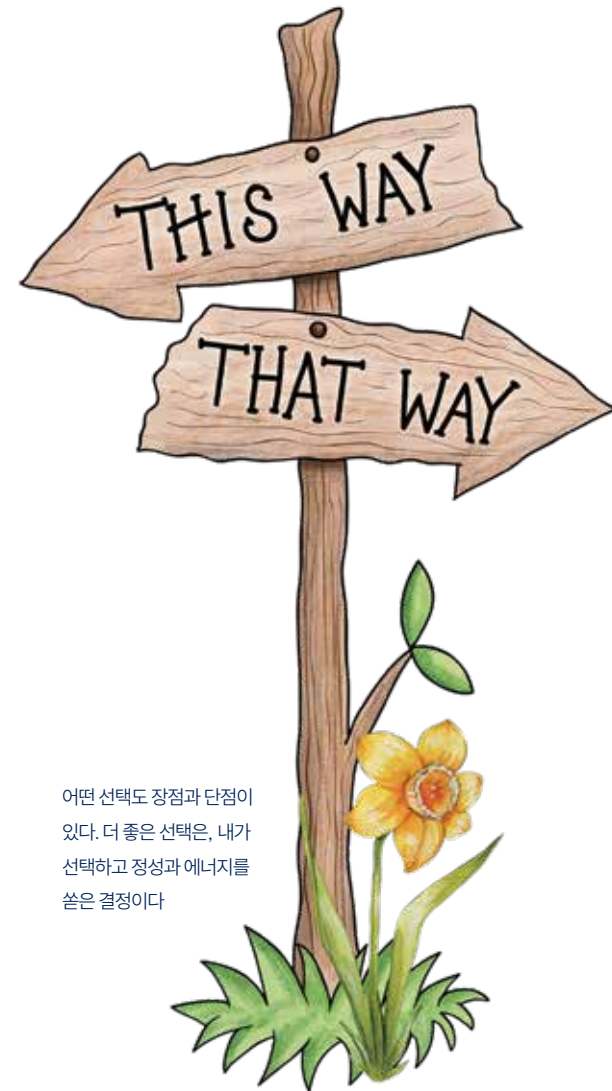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주요 사안에 대해 공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면, 결정장애는 ‘행동이나 태도를 정해야 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망설이다 낭패를 보게 마련이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기결정권이 있음에도 결정장애로 고통을 겪고, 역기능적인 결정장애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곤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키백과에서 ‘결정장애’를 검색하면 선택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신조어라고 정의한다. 실로 결정장애는 정신장애에 관한 분류 체계인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등재되어 있는 장애가 아니다. 정신과에 찾아가서 “저 결정장애로 힘들어요.”라고 얘기해도 심리장애로 진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결정장애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에서 결정을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기에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결정장애에 관한 사례를 들여다보자. 대학교 2학년인 A학생은 지난 학기 전공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다. 수업 출결도 꼬박 꼬박 잘했고, 시험도 잘 봤지만 과제를 제출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교수님께 사정했지만 제출 기한 준수를 중요시하는 교수님의 원칙을 바꾸지는 못했다.



어떤 선택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더 좋은 선택은, 내가 선택하고 정성과 에너지를 쏟은 결정이다



현대인들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행동이나 태도를 정해야 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

A학생은 속상했다. 과제물이 나오자마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과제물 관련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집한 자료 중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자료를 버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은 자료 수집은 어려워하지만 그 이후에는 쉽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왜 수집한 자료를 편집하는 게 어려운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었다. 매일 노트북을 붙들고 씨름하다 결국 과제물 제출 기한을 3일이나 넘겨 버렸다. 그 결과 A학생은 성적표에 C학점을 남기거나 해당 과목을 재수강해야 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결정장애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결정을 어려워하는데, 이는 스스로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없거나 결과를 감당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A학생은 과제를 하면서 내내 '만약 좋은 자료를 버리고 잘못된 자료를 남기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성적이 안 좋게 나올 텐데 큰일이다. 다른 친구들은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와 같은 생각을 했다.

억울한 A학생은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답은 하나다. A학생이 자료를 수집할 때 목적했던 의도대로 과제물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춰 과감히 남길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버린 뒤,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다. 내용이 아무리 부족해도, 제출 기한을 넘겨 과제물 제출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 보자

먼저, '일단 하자'고 결정한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안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고,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고민은 지금까지면 충분하다. 이제는 선택할 때다. 이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려면 종이 한 장과 필기도구를 준비하자. 그런 뒤 종이를 반으로 나누어 오른쪽 윗부분에 선택지 A를 적고 왼쪽 윗부분에 B를 적는다. A를 또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A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 다른 한쪽에는 A를 선택했을 때의 단점을 적는다. 같은 방법으로 B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도 적는다. 적을 때는 무엇이든 떠오르는 그대로 적는다. 이렇게 장단점을 적다 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한눈에 보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워 선택이 수월해진다.

세 번째, 선택했다면 행동한다.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다. 종이에 선택지를 적어 가면서 장단점을 파악했다면 알 것이다. 어떤 선택지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내가 선택하고 정성과 에너지를 쏟은 결정이다. 나를 믿고 행동하자.

위의 내용대로 행동했다면 A학생은 어떻게 됐을까? A학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과제물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해당 과목 교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학생은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첫째, 받은 점수를 통해 과제물 수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과제물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 C학점보다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과제물 작성 시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과제를 완수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불안 가운데서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일단 하자!'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저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호소한다. 그 원인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해결책은 같다. 그저 '행동하자'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 내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년처럼 행동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친년'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지만 그만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생각은 충분하다. 남은 것은 '행동하기'다.

뇌는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뇌 발달은 유년기와 같은 어린 시절에 고정되어 이후에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믿어 왔다.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뇌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환경적인 변화가 뉴런 사이의 연결을 수정하고 해마와 소뇌를 포함한 다른 뇌 부분의 신경 조직 발생을 통해 행동과 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으로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이다. 인간의 두뇌는 학습과 기억 등에 의해 신경 세포 및 뉴런들이 좀 더 자극-반응의 적합한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능력으로 시냅스 가소성을 가진다. 즉, 뇌는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결정장애인가? 그렇다면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뇌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대로 변화할 것이다. 뇌의 변화가 작은 내 결정, 선택, 행동에 달렸다니 흥분되고 즐겁지 아니한가.

정성진 · 곽승현 목사와 함께한 9박 8일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2023년 2월 15일~2월 24일

글 & 사진 이남경 집사



갈릴리 호수

갈릴리!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살았던 나사렛을 떠나 사역지로 택한 갈릴리.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열두 제자를 모으시던 곳 아닌가! 마흔 네 명의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큼직한 나룻배 안에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추며 갈릴리 바다를 만끽했다. 가버나움에서 내려 바라보는 갈릴리 바다에는 묵직한 평온감이 있었다.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접경의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와디 룸

출발

너덧 차례의 사전 미팅을 갖고 교회를 출발한 성지순례 팀은 홍콩을 경유하여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에서 정성진 목사님과 반가운 만남을 가진 후, 해안가 도시 가이사랴를 시작으로 엘리야가 48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죽인 갈멜산과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므깃도의 발굴 현장을 거쳐 갈릴리까지 하룻길에 도착해야만 했다. 날씨는 생각보다 쌀쌀하였으나 사모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걸을 수 있다는 흥분으로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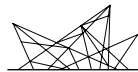


텔단

우리는 배에서 내려 요단강의 시작점인 바니아스 폭포를 거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으로 향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경계를 뜻하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의미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 까지라는 의미이므로 브엘세바는 맨 남단에,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다. 단지파의 이름을 따 단이라 하고, 골란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바쳤다는 해서 '텔단'이라 불린다.

텔단, 바니아스 폭포





요르단 아르는 골짜기

양치기

요르단

우리의 여행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여 38년간 고난의 여정을 보냈던 요르단의 광야를 보기로 하였기에 이스라엘과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요르단을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의 요르단은 1994년 10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어 분쟁을 잠재웠으나 우리 일행의 요르단 입국은 몇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했고, 새 비자를 받은 일행 중 두 명은 이스라엘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까 우려되어 이스라엘에 남기로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요르단을 보니 약속받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개발 상태와 국민의 상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그들의 땅은 척박하고 거친 광야 상태였고, 수도인 암만조차도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하였다.

우리를 실은 차는 끝없는 광야를 가로지르며 나아가다가 압복강과 디본을 거쳐 아르는 골짜기 꼭대기에서 계곡을 내려다보았는데 실은 광야라기보다는 거대한 돌산들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해야 할 것 같았다. 우리가 선 곳은 각도가 45도쯤 되는 깎아지른 듯 높은 돌산 위에서 수십 킬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세였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차

고 추운지 우리는 모두 모자를 움켜쥐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였는데, 그 험준한 비탈길에 바위 색을 닮은 수십 마리의 양들이 이곳저곳에 퍼져 풀이라 할 수도 없는 작은 풀들을 뜯고 있었다. 멀리 한편에 양치기가 겹옷을 머리까지 두른 채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치기는 저 멀리 점같이 보였는데, 우리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양치기는 양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온종일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를 견딜 것이고,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게 그들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였다.

노보산

우리는 다음날 모세가 죽은 노보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요단 계곡과 사해, 멀리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도 볼 수 있는 노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자신이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었다. 사명을 다 마치고 사명의 열매를 볼 수 없었던 모세의 회한을 천국 가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보산 꼭대기에 세워진 눅뎀 형태의 십자가는 광야에서 들려진 눅뎀 지팡이를 닮아 있었다.

노보산 정상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우리의 차는 요르단의 광야를 빠져나와 알렌비 국경을 통과하여 이스라엘에 재입국하였다. 나만 그랬을까? 숙박과 굴레의 공기에서 벗어나 자유와 진리의 해 같은 빛이 있는 이스라엘에 입국하니 우리 자신들이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이제 우리 일행은 사해사본이 발견된 쿨란을 거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난 엔게디, 그리고 사해까지 한 달음에 달렸다.

쿨란은 B.C 8세기부터 A.D 68년까지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 산 공동체였다. 그들은 토라만을 쓰는 공동체로서 높은 수준의 정결을 유지하였고 공동 식사, 정결 의식 등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하며 산 자들이었다. 그늘 하나 없는 쿨란에서 버스는 짙 물이나마 물이 있는 사해로 들어서고 있었다. 신이 난 우리들은 바닥에 있는 천연 진흙 팩을 서로의 얼굴과 몸에 발라 주며 여행으로 무거워진 몸을 찜물에나마 뉘 수 있었다. 수영을 못해도 뜨는 몸! 즐거운 웃음소리! 우리는 아쉬운 시간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재촉했다.

여행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 예수께서 마지막 피와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드렸던 예루살렘의 겐세마네 동산과 통곡의 벽, 십자가를 지고 생애의 마지막 길을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슬픔, 고난의 길이라는 뜻)를 향하였다. 그러나 이 비아 돌로로사는 상점과 건물들이 들어서 당시의 실제 투박했던 길을 연상할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쿨란



사해

아들람 굴

가이드 목사님은 그런 우리에게 보너스 구경을 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아들람 굴’이었다. 굴이 땅 밑으로 어찌나 크고 열기설기 연결이 되었던지 다윗의 400명이 지내기에다 충분할 정도였다. 나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듯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나라들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것을 굳게 믿는다.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암 9:15) 그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길 기도해 본다.

아들람 굴



감사로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리며 시작한 성지순례! 준비한 여러 손길, 최연수 팀장님의 매끄러운 진행과 박성택, 문상원 목사님의 빈틈없는 준비, 이리저리 뛰며 사진과 비디오 찍기에 바빠 여행을 일처럼 하신 영광흠 실장님, 독감으로 힘드셨을 텐데도 내색이 없으셨던 정성진 목사님, 기도로 섬겨 주신 정정진 목사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시고 다독여 주신 광승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 해도 허사가 되었을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여행을 순전하게 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길가의 어린양을 안은 광승현 위임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끈 삶,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글 한요한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교회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출생의 비밀’

대입 수능을 치르고 오랫동안 꿈꿔 왔던 선생님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사범대, 교대 두 곳에 원서를 접수했다. 문제는 ‘나머지 한 곳을 어디에 쓰느냐’였다. 목사님의 권유로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기독교교육과에 지원하였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신학교는 관심에 없었다. 장신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였고, 어차피 가지 않을 학교였다. 하지만 앞선 두 학교는 예비, 장신대는 합격 통보가 발표되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모인 가족회의 자리에서 나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다. 내가 잉태될 무렵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라는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키우시며 목사의 목자도 꺼내지 않으셨고, 본인처럼 공직의 길을 가라고 지도하셨다. 어머니는 엄격하신 아버지의 뜻에 반하지 못하시고 약 20년간 그저 기도만 하셨더라. 그렇게 아버지의 서원 응답으로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신학교에 입학했다.

성장 프로젝트 ‘군 입대’

막상 신학대에 입학하니 학생들이 모두 팔방미인들이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고, 소심하기까지 했다. 그때부터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악기와 찬양 인도를 배웠다. 방학이 되면 담임목사들만 모이는 세미나들을 기웃거리며 목회가 무엇인지 염탐하였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은 여전했다.

그러던 와중 ‘학사 장교’의 길을 알게 되었다. 장교로 임관하여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는 지휘관이 된다면 성격이 바뀔 것

» 학사 장교 시절



신대원 입학 후 아내와 결혼

같았다. 그렇게 2007년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소위 말하는 군대 체질이었다. 정해진 스케줄과 규율이 몸에 맞았다. 포병 장교 생활을 하며 대대 상담관 역할도 병행했는데, 병력들을 지휘하고, 상담하면서 내 성격은 자연스럽게 너스레 좋고 대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2010년 10월 제대와 동시에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룹 스터디에서 대학 후배였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이듬해 입학했지만, 나는 재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행 18:26)의 말씀을 주시며 아내와 결혼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 하지만 아내는 순회선교단에서 열리는 복음학교를 다녀온 후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일주일을 꼬박 복음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왜 그곳을 다녀오라고 했는지 깨달았다. 목사로 살아가기 이전에 복음으로 살아가자는 그녀 나름의 프로포즈였던 것이다. 무슨 여자가 프로포즈가 이리 투박한가? 복음학교를 다녀오기 전 나는 목사로 성공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었다. 악기를 배우고, 설교 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가려서 했다. 그래서 ‘잘나가는 목사’가 되고자 했다.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담임하며, 반듯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설교하는 ‘성공한 목사’가 목표였다. 그런 나의 목표에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가?’라는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없었다. 이후 다시 시작한 입시 공부는 독서실 책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성경 공부가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기 위한 만남의 시간으로 채워 갔다. 그렇게 신대원 입학 후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다.

» 어머니(유명진 권사)의 기도와 아버지(한성욱 안수집사)의 지원으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

스스로 자처한 광야의 삶

2020년 여름 위기가 찾아왔다. 안정적인 부교역자의 삶을 살아가던 차에 불현듯 찾아온 질문, ‘여전히 복음으로 충분하니?’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했다. 복음학교를 다녀온 지 딱 7년 만이었다. 사역은 타성에 젖어 있었고, 목회의 탄탄대로를 보장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앞에 ‘괜찮은데? 적당히 타협하고 시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단 하루도 목회를 지속할 수 없었다. 성도님들께 죄송했고,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임했다.

대책이 없었으니 오히려 편했다. 새벽에 녹즙 배달을 하고, 아침에 다 이소 매장의 물류 박스를 옮기는 알바를 했다. 오후에는 합기도 도장 차량 운전을 했다. 그렇게 광야로 삶을 던졌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새벽 배달을 하며 듣는 설교와 간중에 은혜받고, 배달을 멈추고 공원에 앉아 평평 울기도 했다. 그리고 성도들의 ‘평일’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치열하구나, 처절하구나!’

그렇게 1년 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의 상황은 정리되었다. 그리고 나의 신앙도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세운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컸음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경험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맡겨진 다음세대를 위한 자리에서 미약하고 부족한 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다음세대가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과도기에 나를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부로 부르신 뜻을 잘 헤아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한다.



교하광성교회

글 김용기기자

☞ 2022년 추수감사예배를 마치고 전체 교인이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 공간

“교회 개척 5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빌딩 속에 있는 교회로 외부에 십자가를 세울 수 없었지만 끊임없는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튼실한 지역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지원으로 지난 2018년 3월 개척한 홍종학 교하광성교회 담임목사를 만났다. 홍 목사는 모두가 말리는데도 교회 개척을 강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던 시기, 그해 겨울에 길을 건다가 미끄러져 얼굴을 다쳐 열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뭘 걱정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홍 목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는 곧바로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위임목사를 찾아가 개척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지체 없이 교회 자리를 물색해 건물을 임대하고 개척을 준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개척을 도와주기 위해 동행해 준 25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한 교하광성교회는 현재 90여 명의 성도들이 등록하고, 이 가운데 매주 60~7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



☞ 홍종학 교하광성교회 담임목사가 2023년 전체 성도들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한 말씀 액자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전도사와 교사선교사 파송 받아 교회 학교 설립

지금의 교하광성교회가 있기까지 힘든 과정도 수없이 넘었다. 특히 기억되는 일은 한 젊은 성도와와의 눈물의 헤어짐이다.

“교회가 성장하던 초기였어요. 아이 둘을 둔 가정이 등록해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코로나19로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며 상담을 해 왔어요. 잡고는 싶었지만,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는 일이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인터넷 교회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라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홍 목사는 그 일 이후에 거룩한빛광성교회에 교육전도사 지원을 요청했고, 2022년 4월부터 교육전도사와 교사선교사를 파송 받아 교회 학교를 세우는 데 힘쓰고 있다.

교회의 공간이 비좁아 성인 예배와 학생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없게 되자 옆 건물인 유도 체육관을 주일에만 빌려 오전 9시 30분에는 교회 학교, 11시 30분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 더 넓은 예배 장소로 이전 계획

교하광성교회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 지난해부터 새가족 성도가 부쩍 늘고 있다. 가족 단위 교인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 교하광성교회는 믿는 아내가 남편을, 믿는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며 끊임없이 전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 교회 학교에서 열린 달란트 잔치에서 어린이들이 과자와 음료를 사며 즐거워하고 있다

“지난해만 25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어요. 개척한 지 오래지 않은 작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새가족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주일이면 오전 9시와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리는 데 2부 예배는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교하광성교회는 올해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예배와 어린이와 학생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예배 공간을 물색하고 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파송 받은 왕하늘 교육전도사와 교사선교사가 2022년 4월 10일 교하광성교회 교회 학교 첫 주일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 교하광성교회는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일예배를 드린다

그곳에 예배가 있었네

1사단 신병교육대 전진제일교회

글 김형수기자

대한민국 남성 청년 대부분은 군대에 갑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와 격리되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 군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까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육군 제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전진제일교회 김태웅 목사님께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전진제일교회 전경



질문 1 군부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어느 목사님께서 4만의 기독 청년이 입대해서 제대할 때 약 1만의 크리스천만 교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부끄럽지만 군 생활 때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기억이 나서 군 생활 동안 기독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여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2021년 1월부터 1사단 신병교육대 전진제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질문 2 군부대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배 외 시간 선교 활동도 알고 싶습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 광고, 축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광고 시간에 그 주간에 생일을 맞은 훈련병들을 불러내 축하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후 기간병 중심으로 성경 모임을 하며, 보통 서너 명이 참석하여 성경 공부 및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질문 3 군부대 선교의 애로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부대 내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대 지휘관의 종교와 성향에 따라 군부대 선교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민간인의 부대 출입이 금지되었고, 이에 전진제일교회 담임목사님에도 교회에 출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만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부대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임

찬양하는 병사들



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믿음의 지휘관이 취임하셨습니다. 점차 지휘관과 소통하면서 부대 내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 4 군부대 교회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전진제일교회는 간부 성도들은 없고 주로 훈련병들과 소수의 기간병들 중심으로 평균 칠십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참석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운영은 전액 선교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

해 외부 후원 교회들이 방문하지 못해 선교 후원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병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교회 절기와 6·25나 국군의 날과 같은 군과 관련된 기념일을 맞아 부대에 특별 간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5 군부대 선교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예전 군부대는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아주 다릅니다. 군 인권 보장 정책으로 인해 종교 행사 참석 강요 및 특정 종교의 강요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병영 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강요로 느껴 신고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사명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훈련병들이 훈련 내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부대 교회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성경 공부와 신앙 상담을 통해 믿음의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한 전도를 실천하여 믿음이 없는 병사들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래서 훈련병들과 병사들이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전진제일교회의 목표입니다.

국군의 날, 간식이 제일 반가워요!



조이풀장년부의 비전 ‘가정 회복’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글 우주희 기자



« 조이풀장년부

코로나 이후 많은 3040세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이풀장년부가 오늘도 잃어버린 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담당 사역자인 차광욱 목사님을 만나 조이풀장년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여쭙봤습니다.

1 조이풀장년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열두 가정이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목장 나눔을 하던 것이 열여섯 가정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참여 가정 대부분이 리더로 서면서 조이풀장년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이풀장년부의 핵심 가치는 ‘가정(家庭)’에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회복하는 것, 둘째로 그렇게 회복된 가정들이 교회 안에 뿌리내려 또 다른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2 참여대상자, 모임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세요.

가정 모임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조이풀장년부 모임을 최소 2년은 하는 것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가정을 회복할 사람을 길러 낸다는 비전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부부

중 연하인 분의 나이 43세까지 지원받고 있고, 활동은 45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드림 교육관 2동에서 진행됩니다. 매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3주 동안 모이고, 넷째 주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강하게 세우려는 비전을 실현하려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마지막 주는 가정 주간으로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적용하며 가족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자녀를 동반한 부부를 위한 돌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딜 가나 아이들로 눈치받기 쉬운 요즘,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로 전체 모임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모임 중 아이를 낳힐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아이를 낳히고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분



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나눔 시에는 나눔에 집중하기 위하여 자녀 돌봄 팀도 운영하고, 주로 5세부터 취학 아동까지 자녀 돌봄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전체 모임의 허용적인 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인지 소그룹 나눔 시간에도 자녀들을 보내지 않고 함께 나눔을 하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4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예배나 가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22년 6월, 오프라인으로 처음 열었던 예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컸지만 결혼 후 현실에 갇혀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을 잃었던 이들이 살아 있는 예배를 통해 감사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터져 나온 듯합니다. 바라보는 마음이 찢혔고 그만큼 이들 안에 믿음의 비전이 확실함을 느꼈습니다. 조이풀장년부 사역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상처로 교회를 떠나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이풀장년부 모임에 반년 정도 참석하신 후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상처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등록은 물론 섬기는 봉사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충돌과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도 모임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5 조이풀장년부에 새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지요?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전담 사역자는 김민혁 목사님이십니다. 조이풀장년부가 백이십 가정이 넘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홀로 감당할 수 없어 함께 이모임을 세워 갈 목사님이 필요했습니다. 김민혁 목사님은 상황을 분석하여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팅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도 선수 출신이시라 덩치가 크신 반면 마음은 섬세하고 따스한 분이십니다.

6 조이풀장년부의 2023년 새로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일 년 내내 공동체 조직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다면 올해는 ‘훈련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말씀 훈련, 하반기에는 부부 소통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올해는 새로 오신 김 목사님과 함께 조이풀장년부 모든 가정을 만나는 전체 심방을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이풀장년부 지체였다

가 선교사로 나가신 박배관 선교사님께서 과테말라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8월 초에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7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조이풀장년부 공동체 안에 예배와 말씀이 견고히 세워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훈련, 심방, 선교가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섬기는 리더십이 한마음을 모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2.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MBTI 활동
3.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
4.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교회 코칭 사역 이야기 ①

글 한종진 장로



평신도 주축 코칭 사역

2022년 12월 17일은 교회에서 기억할 만한 날이다. ‘우리 교회 코칭 사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거룩한빛광성교회’의 6년간 코칭 사역 내용을 한국 교계에 발표한 날이다. (사)한국코치협회 기독교코칭센터 주최로 개최한 제1회 코칭사역박람회이기에 1만여 코치들과 교계 및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알려진 행사였다.

특히, 평신도가 주축이 된 교회의 코칭 교육으로 (사)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 열한 명을 양성하였고, 교회로는 처음 있는 사례였으며,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전문 코치를 양성하여 코칭 봉사와 코칭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다.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어디에나 빛을 비취 주신다. 202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가리어진 것처럼 느끼며 힘겹게 어둠의 시기를 통과했다.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벗어나 비교적 예전처럼 자유로운데, 교회 출석 성도들은 코로나 19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격리로 인함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 밝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코로나 과정에서도 교회의 코칭 교육과 (사)한국코치

협회 전문 코치 인증과 코칭사역팀 신설을 허락하시고, 교인들에 대한 코칭 봉사도 시작하게 하셨다. 코칭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방안을 발견하여 스스로 실행으로 옮기고, 행복한 삶을 찾아 살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면, 코칭사역팀 팀원들은 코이노니아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대화법으로 소통

애덤 S. 맥휴가 그의 저서 『경청, 영혼의 치료제』에서 “치유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제대로 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아프다”고 했던 의미를 아는 전문 코치들은 코칭받기를 신청한 고객(성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발견을 실행과 성취로 이끌어 줄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코칭은 인본주의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코칭은 철저한 신본주의로서 성경적이고, 코치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대화법으로 소통하며, 코칭 과정 내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교회 내 모든 사역에서 코칭적 대화법이 적용된다면 사역이 더 기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3월, 9월에 수강생 모집

이 대화법의 일부를 해마다 임직 예비자들을 위한 섬김사관학교에서는 이미 3년 동안 시행했고, 2023년도에는 시간을 두 배로 증가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광승현 위임목사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에 코칭 리더십이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부목사님들께도 코칭 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대화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CCL) 과정’은 계속될 것이며, 올해에도 성경대학 과정에서 예년과 같이 3월과 9월에 수강생을 모집한다.



☞ 2022년 12월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열린 ‘제1회 코칭사역박람회’에서 ‘우리 교회 코칭 사역 이야기’란 주제로 발표 중인 거룩한빛광성교회 한종진 장로



☞ 성경대학 8주 과정 수료자들의 CCL 8기 수료식(2022년 1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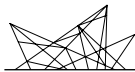


☞ 2022년 12월 거룩한빛광성교회서 열린 ‘교역자와 함께하는 코칭 세미나’. 강사는 기독교코칭센터장 정요셉 코치



☞ CCL(Christian Coaching Leadership) 과정 수강자 모집 홍보. 성경대학 시작인 3월과 9월 초에 홍보





맛디아 Matthias

글 김은숙 기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인 맛디아는 배반한 가롯 유다의 빈자리에 세운 예수님의 열두 번째 제자이다. 열한 명의 제자들은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열두 번째 후보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마침내 두 명의 후보를 선출하였다.

²²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²³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²⁴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²⁵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²⁶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행 1:22-26]



제자들은 선출 과정에서 다툼이 없게 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향아리 속에 돌의 이름이 적힌 돌맹이를 넣고 뽑힌 사람이 맞디아였다.

¹⁸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잠 18:18]

‘12’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약 열두 지파에서 시작하는 대표적 완전 숫자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열두 제자이다. 그러기에 열한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기준으로 기도하여 맛디아를 뽑아 열두 제자의 수를 완성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는 말씀을 따른 것이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증언하다 순교하였듯이 맛디아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다 카스피아 연안에서 큰 핍박과 박해를 당하여 콜키스 또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튀르키예(Türkiye) 카파도키아에서 무리들에게 돌팔매를 당하였으나 죽지 않자 참수를 당하였다고 전해진다. 주님의 열두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다 순교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그와 같은 충성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따름으로 장차 주님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맛디아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직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길을 묻다

기획 김형수 기자, 조희성 기자

봄입니다. 태어나는 어린 생명들을 보며 기독교의 내일을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욱 부흥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다음세대 사역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기독학생회(IVF) 대표 정재식 목사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다음세대로 나아간다

길을 묻다 다음세대

한국기독교학생회(IVF) 대표
정재식 목사



1 우리나라 IVF 청년 사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IVF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단한 역사와 현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IVF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53년 조동진 목사님과 이정운 선생님을 통해서 ‘한국대학생복음연맹(IVESF)’이 결성되었고, 1956년 IFES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면서 한국 IVF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18개 지방회, 150여 개 대학에서 활동 중이며, 귀납적 성경 공부와 소그룹 운동,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균형 잡힌 크리스천 리더십을 배출하기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나간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으신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기성세대는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 대학생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2012년 17.2%에서 2022년 14.5%로 2.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며, 교회 출석 여부를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17년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은 전체 71.3%였는데 2022년에는 58.3%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것은 명목상의 신자가 늘어나고 신앙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신과 섬김만을 강요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실제로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불교 신자는 8.8%에서 6.6%로 줄어들었고, 천주교 신자는 7.3%에서 4.9%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기독교 이탈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타 종교는 그 속도와 위험

성이 훨씬 더 높고 가파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 사회학자들은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는 신앙의 전수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그친다면, 기독교는 신앙의 가르침과 믿음의 전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사실이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과 함께 ‘아직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청년들은, MZ세대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기성세대가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고민은 ‘진로와 취업 문제’입니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세 배 가까이 높고, OECD 전체 국가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 청년 대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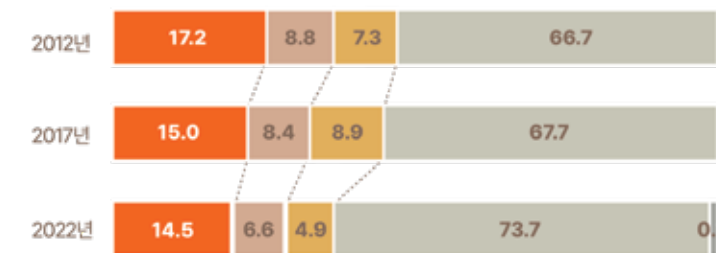


그림 1 종교 보유 여부(202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학원복음화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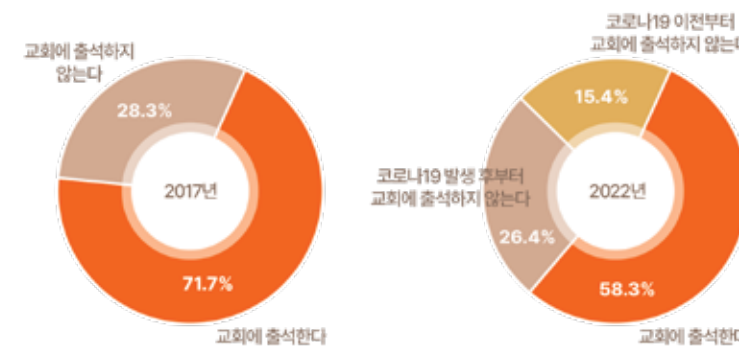


그림 2 교회 출석 여부(202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학원복음화협의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

의 최대 관심사가 진로, 취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별다른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이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혼을 선택하거나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과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청년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그렇기에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

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청년들을 위해 기성세대는 무엇을 금하고 (또는 절제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성세대와 다음세대의 소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육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진정성’ 어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뢰 관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느냐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누가’ 무엇을 주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지,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진정성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 IVF가 원하는 기독 청년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독 청년 공동체를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IVF가 바라고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말씀이 살아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과 섬김의 본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IVF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종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저는 여기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 우리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물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인생에 대해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청년들에게 많은 질문과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고전 3:6)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쓰임 받는 정결한 주의 통로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려 받은 것들



⌂ '겨자씨' 학생 기자가 되어 처음으로 한 인터뷰. 설렘과 긴장 속에 인터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기자의 매력을 발견했던 시간

친구 인터뷰 - 설렘과 기쁨

글 최아인 학생 기자(중3)

겨자씨 기자로서하는 첫 인터뷰, '가정'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지만 질문을 떠올리다 보니 어려운 감이 있어 좀 더 쉽고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 학교에서의 신앙생활, 롤 모델에 대한 십대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중등부 예배팀 친구의 인터뷰를 통해 들여다보자.

성경 1독 해 봤나요? 해 봤다면 동기는 무엇인지, 아직 안 해 봤다면 1독을 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아직 안 해 봤지만, 시편과 잠언 1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잠언은 지혜의 장이라서 하나님의 더 많은 지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읽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나요? 한다면 대략 몇 분 정도 하는지 안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처럼 기도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식사기도는 평소보다 짧게 하는 편입니다.

친구에게 크리스천임을 고백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친구들과 각자 종교가 무엇인지 나눌 때 크리스천임을 고백한 적 있습니다.

친구들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럴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교회에 다니느냐고 먼저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가 아닌 집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짧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빠의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주일에는 원텐텐 가정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어떨 때 기도하시나요?

감사할 때, 회개할 때,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인 친구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친구는 신앙적인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나 아이돌, 연예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해서 그 이후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마음에 와 닿거나 힐링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청소년(또는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부러워서 하나님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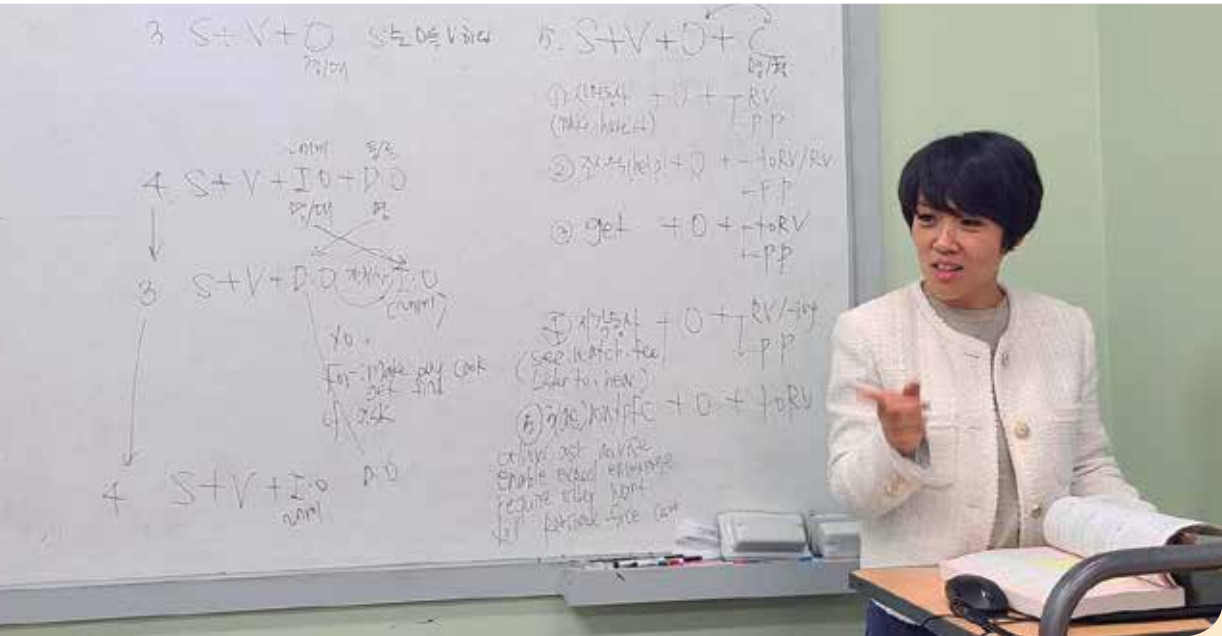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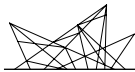
학교 친구들을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전도했었지만 친구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그 이후로 같이 다니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인터뷰'는 중등부 예배부 김서은. 서은이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잘 챙기기 때문이다

처음 해 본 인터뷰였던 만큼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평소 친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쑥스러웠다. 이번 인터뷰가 친했던 친구의 미처 몰랐던 생각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 그 속에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삶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점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교회뿐 아니라 가정, 학교에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꾸준한 노력이 곧 최고의 열정임을 알게 해 준 신혜인 선생님

열정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신혜인

글 이하음 학생 기자(고1)

여러분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열정이라는 두 글자가 생각납니다. 목표를 위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하는, 기나긴 마라톤의 끝에서 웃음 짓기 고달픈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해 주는 열정은 아주 중요한 연료가 되어 줍니다.

오늘은 항상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여 주며,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마라톤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을 볼 때면 저에게까지 그 열정의 온도가 전해져,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곤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이 뜨거운 열정이 닿길 바랍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운정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 꿈을 꾸게 된 계기와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공인회계사라는 꿈을 위해 미국에 머물렀었죠. 그러다 잠시 한국에 있는 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대형 입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시작



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급이 좋은 아르바이트'라는 생각 외에는 어떠한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너무 좋아졌어요"라는 말을 하더군요. 무언가에 한 대 광 하고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날을 계기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고, 같이 노력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생님이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잠시만 하겠다면 일은 그렇게 제 평생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을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당연히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혹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제자여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에 못지않은 보람을 느낍니다. 문득 저에게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던 어느 제자가 생각나네요. 어느 해, 수능이 있었던 다음날 새벽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방향했던 중학교 시기에 선생님을 만나서 외고에 차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어제 있었던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았다고, 선생님 덕분에 힘들었던 저의 십대를 잘 버틸 수 있었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 문자를 읽고, 너무 벅차고 기쁜 마음에 울음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지만, 제자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잘 성장한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열정이 가득하신데 어떻게 그 열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또 자신이 생각하는 열정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를 열정적이라고 생각해 주니 너무 고마운데요.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이 저에게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어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 삶이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차기를, 그래서 저를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줄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열정이 얼마나 꾸준한 노력으로 빛어진 것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을 살아 내기 벅차서, 당장 닥쳐 올 현실의 무게 때문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목표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잠시 미뤄두었던 뜨거운 열정은 천천히 식어 검은 재가 되어 마음속에 잊혀 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작은 불씨를 꺼내어 이 마라톤의 시발점에 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 내는 용기의 첫걸음을 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끓어오르는 열기를 방아쇠로, 긴 마라톤의 끝에서 후회 없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항상 긍정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선생님





1



2



3

“하나님 자녀로 학교생활도 잘할 거예요”

글 전영숙 기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교회의 표어에 맞춰 초등1부에서는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라는 교육 표어로 2023년을 시작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라는 낯선 환경을 맞닥뜨린 아이들 못지않게 초등1부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처음 대한 이재광 전도사는 그 낯선 관계를 풀어 가기 위해 하나둘씩 과제를 해 나가는 중이라고. 올해부터는 같은 학년을 2년 동안 섬기게 돼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도 머릿속에 새겨 두고 있단다.

초등1부의 1월은 서로를 알아 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의 반 선생님은 누구인지, 반 친구는 누구인지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이제 의젓한 초등부로서의 예배 모습을 익혀 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월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듣고 클레이 아트 등을 통해 직접 활동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기쁨으로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코너 학습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 스포레이션(스포츠+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 가는 시간이었다.

3월은 첫 입학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학교생활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선생님들과의 활동을 통해 알아 가도록 했다. 초등1부의 첫 시작이 아이들이나 이 전도사에게 귀한 기억으로 자리하길 기대해 본다.

1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아 간 초등1부의 겨울성경학교

2 설교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오물조물 클레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3 초등부에서의 예배에 적응해나가는 초등1부 학생들



1



2



3

“특별하고도 소중한 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봐요”

글 전영숙 기자

초등6부의 2023년 시작은 겨울성경학교 준비로 부산했다. 3년 만에 기대함으로 치러지는 만큼 교사들 먼저 준비된 자세로 감습회를 가지면서 초석을 다졌고, 8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그 빛을 발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진행한 겨울성경학교는 우선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한 이소영 목사의 MBTI 특강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강의를 통해 각자의 성향과 기질을 알아 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김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썰매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마지막 날은 연합예배로 성경학교 때 배웠던 말씀을 퀴즈로 복습하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맛있는 간식을 함께하며 성경학교 때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시란 전도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며 아이들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세를 몰아 초등6부는 2월 22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사순절 묵상 노트와 총회 공과에서 제공하는 사순절 말씀 달력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다졌다. 초등부의 만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초등6부 아이들의 당차고도 굳은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큰 열매 맺길 고대한다.

1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진행한 초등6부 겨울성경학교

2 겨울성경학교 때 레크리에이션에 적극 참여하며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3 자신을 알아 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초등6부 학생들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등부 침낭 나눔

글 정은숙 기자

누구보다 외롭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사업의 실패로 지하철역과 지하 주차장에서 하룻밤을 종이 박스에 의지하여 겨울철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기 위하여 중등부가 나섰다.

생명의 침낭 나눔

중등부는 '프레이포유(Pray For You)' 라는 노숙인 살림 공동체에 매년 여러 방식으로 기부 선교를 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도 추위에 떨고 있는 거리의 노숙인에게 침낭과 겨울 의류 등의 방한용품을 가지고 가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귀한 나눔을 실천했다.

학생들은 기부를 통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노숙인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던 시선을 바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부터 지난 6년 동안 거룩한빛광성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보낸 물품들은 관심과 사랑의 기도가 되어 노숙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도움의 손길이 되고 있다. 프레이포유 손은식 목사는 “추운 겨울 거리의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으며, 중등부의 사랑의 실천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올 겨울에도 중등부의 선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중학교 3학년 졸업 MT

코로나와 중학교 시절을 함께했던 3학년들에게 졸업은 너무나 아쉽기만 하다. 예배와 만남과 교제,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그 역경을 이겨 낸 멋진 학생들에게 가장 특별한 기억을 선사하고자 준비한 마지막 추억 여행 속으로 함께 떠나 보자. 꿈젠 중등부에서는 졸업을 앞둔 오십 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특별한 졸업 MT를 진행했다.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3년, 비대면 예배 등으로 중학교 3학년에게 마지막 추억을 선물해 주기 위해 '실내 캠핑'을 기획했다. 스낵부스, 프로젝트 영화관,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순서도 준비했다. 교역자와 3학년 교사들 역시 소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지난 3년간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염유현 전도사는 “2020년 입학부터 졸업까지 코로나로 고생한 중3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하며 졸업 MT가 학생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중등부의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중등부 3학년

2 실내 캠핑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3 중등부 1학년 환영식 간식 준비하는 시간

1 2023 REALIGN 동계수련회 공동체 광성올림픽을 단체 사진

2 동계수련회 '너의 리얼라인을 보여줘' 조별 발표 시상

3 동계수련회 저녁기도회



빛나라 고등부, 빛나라 다음세대 자녀들이여!

글 정은숙 기자

거룩한빛광성교회 고등부의 루미너스 제자훈련 교육,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제자훈련 과정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교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가운데 고등부도 이를 피해가 수 없었다. 입시에 영향을 받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현장예배의 중요함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고등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성전예배로 집중하기 시작했고, 비대면 제자훈련을 대면 제자훈련으로 정비했다.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멈출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내놓은 교사를 선두로 적극적인 헌신 속에 제자훈련 두 반을 구성하였다. 박주는 전도사는 제자훈련을 맡아 진행하며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했다”고 말했다. 고등부 루미너스 제자훈련은 이름대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했던 날 열린 동계수련회, 맹렬했던 추위를 뚫고 동계수련회 장소로 모인 학생들은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열기 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자.

고등부는 REALIGN이라는 주제로 양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동계수련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하계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기에 동계수련회도 기대하는 눈치였다. 잠잠하던 코로나19 기승과 함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지만 준비하는 교사들 마음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련회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한 이동, 계획한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 학생들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너의 REALIGN을 보여 줘' 프로그램은 조별 활동으로 학생들이 협동심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코로나로 인해 교제가 없어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이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교사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교사로서 뿌듯한 마음, 감격스러운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렸고, 효요한 전도사는 “수련회 기간 REALIGN은 그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고등부 공동체를 새로이 정립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으며, 함께해 주신 조준동 부장과 TF팀의 헌신과 수고에 감동을 전한다”고 말했다. 수련회 행사를 무사히 마치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청년광장



필리핀 비전 트립 피스 메이커 이야기

글 조희성 기자

광성교회 청년부는 2023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간 필리핀 톤도(Tondo), 파야타스(Payatas) 지역의 최성욱 선교사, 정준 선교사님의 사역을 탐방하는 '피스 메이커(Peace Maker)' 필리핀 비전 트립을 진행하였습니다.

헌신과 노력으로 준비한 필리핀 비전 트립

두 명의 교역자와 열여섯 명의 청년들이 함께한 이번 비전 트립은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의 목적은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 사역지를 이해하고 돕는 가운데 개인의 선교적 비전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며 기독교 청년의 시야를 확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현장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재정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이들은 25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되었기에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비정규직 근로를 하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었지만 비전 트립에 필요한 재정은 한 달 급여 수준이었으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각자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선교를 위한 워십과 선교 드라마, 현지어 찬양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선교 바자회와 예배 특송, 단합회 등 바쁜 일정도 소화해야 했음에도 주일이면 많은 시간을 들여 헌신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일정을 소화하며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비전 트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눈으로 확인했던 순간

필리핀 사역지로 도착하니 아이들이 꽃 목걸이와 특별하게 준비한 워십으로 비전 트립 팀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은 크고 큰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력 범죄에 시달리던 이들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땅은 빈부 격차가 극심하여 삶의 문화와 터전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땅에서 어둠의 역사와 문화를 끊어 내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품은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알려 주셨습니다. 매끼니 밥을 먹고, 매일같이 가족들과 사이를 유지하는 것처럼 역경을 이겨 내는 선교의 과정 역시 삶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생의 여정과 삶의 이야기로 풀어 주셨습니다.



1



2



3



4



5



6

1 최성욱 목사님의 깜짝 생일 축하 파티

2 워십 사역 후 뜨거운 호응

3 선교사님의 간증

4 아이들은 언제나 해맑다

5 함께해 주었던 필리핀 교회 청년들

6 이 마을에도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의 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역지 성도들의 순종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 사역지의 성도들은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3년 동안의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청년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변화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필리핀으로 떠나는 날에도 청년들은 이 필리핀 땅에 우리를 보내는 이유를 주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과 서로 하나 되는 사랑 속에 얻은 결론은 선교는 변화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선교적 경험이 그저 단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돌아왔을 때 더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선교적 동력으로 성장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전 트립에는 많은 재정과 노력, 시간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적 사명을 더욱 알아 가고, 이를 공동체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 동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이를 청년부 자체들과 나눔으로써 선교의 동력이 다른 공동체의 연결 사역으로 전환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선물을 받고 돌아왔던 비전 트립

글 김민서

수능과 대학 수시 지원이 끝나지 않은 고3 시기에 비전 트립을 신청한 터라 정기 모임 참여도 어렵고, 복잡한 마음에 중도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팀원들과 교역자 분들의 배려로 11월 말부터 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류 후 대학 입시와 더불어 팀원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불안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대학을 허락하시며 제게 응답하셨고, 좋은 팀원까지 보내 주셔서 편안하게 적응하여 부족하고 미숙할지라도 제가 사랑하고 원하는 저의 모습을 회복하고 사역 준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필리핀, 최성욱 선교사님께서 안내 사항과 선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선명해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의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 내신 건지 궁금했는데, 파야타스와 톤도 지역 교회에서의 사역이 그 해답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찬양과 워십에 크게 박수치며 웃어 주는 아이들의 진심어린 모습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덥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에 힘이 났습니다. 잠시나마 선교의 기쁨과 선교사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준, 하은주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여 마주한 필리핀은 사람 사는 곳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



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나고 악취가 심각해 마을을 둘러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제 삶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에 가득 찼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그 땅에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으니, 빠르진 않더라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준 선교사님과의 일정 가운데 나익교회에서의 청소년 철야 예배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각자 준비한 워십과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워십 공연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워십 팀으로 활동했던 시간들이 떠오름과 동시에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 부르며 춤추는 모습에서 '나는 언제 저렇게 자유롭게 예배한 적이 있었지?', '한국에 돌아가서 저들처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기뻐 뛰며 춤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면서 걱정은 사라지고,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와 같이 찬양하고 춤출 수 있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등부 워십 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는데, 워십 팀 친구들에게 나익교회에서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또한 주님께 제 삶을 맡기고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저를 통해 행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욱 풍성하고 뿌듯했던 비전 트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과, 나와 함께한 모든 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비전 트립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글 김주원

스무 살이 되어 교회와 멀어져 있던 차에 비전 트립이라는 말을 듣고 고민도 없이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에야 매주 주일 저녁 준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담이 컸지만 비전 트립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지친 일상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가득 차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기만 했던 저는 일상의 짐을 한국에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지루했던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전 트립 초반 사흘 정도는 어린이들을 만나며 사역을 하면서도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제게 필리핀 땅을 허락하신 이유를 보여 주셨습니다.

쓰레기 마을에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QT 시간에 팀원 중 한 명이 "우리가 이곳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말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을에 방문하고 나서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양죽, 과자, 음료수, 사탕 등 먹을거리를 나누어 준 후 마을 탐방을 하는데 저희가 나누어 준 죽 쓰레기와 과자 봉투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쓰레기로 가득한 초록색의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한 집터가 온통 쓰레기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누어 준 음식들 또한 쓰레기가 되어 이 마을에 쌓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



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비전 트립 팀원들의 맨 뒤에 서서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역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나의 한 행동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필리핀 땅에 온전히 공감하고, 이들과 한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 하이 파이브를 하고 싶지만 뒤에 있어서 못하는 아이들, 춤을 추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길을 지나가면서 필리핀 현지인들과 눈이 마주칠 때면 항상 웃으면서 "Hello!"라고 인사를 건네고, 눈 마주친 모든 아이와 하이 파이브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영어 찬양 메들리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되어 있었던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가가 하이 파이브를 하고 함께 춤도 추었더니 아이는 감사하다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는 저와 기념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이들의 추억에 남아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 전 '나 혼자 QT하고 묵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동체를 부정했지만 비전 트립을 통해 공동체의 나눔에 은혜가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일 4:12)라는 말씀을 나누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꼭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글 박주현

저의 첫 선교였던 필리핀 비전 트립, 시작은 목사님의 권유였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간직해 온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살고 싶었던 마음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교는 제 범주 바깥에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그만큼 동하지 않았었기에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의 이유를 찾고 제 그릇이 확장되기를 바랐습니다.

출국 전, 약 두 달 동안 매주 주일 저녁에 모여 스킷 드라마, 워십, 아카펠라 찬양, 현지어 찬양, 어린이 찬양 메들리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역지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 주는데, 준비하는 동안 느끼지 못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사역지인 파야타스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 되어 예수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춤추며 즐거워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 또한 자유롭게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어 쓰레기 마을 카비테(Cavite) 지역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은혜가 큰 곳이라고, 쓰레기 더미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변화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현지어로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선교사님을 포함해 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에 이 찬양의 가사가 삶의 고백이 되는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절망 가득한 땅에 희망을 자라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며 선교가 얼마나 큰 보람과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동시에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과연 마음이 어느 정도여야 자신의 삶을 이곳에 내걸 수 있는지, 저는 절대 가지지 못할 마음일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이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헤어질 이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라면 이곳에 살 수 있을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걸 수 있을까? 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쓰레기 마을에 꽃을 피우기까지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들으며, 선교를 결단하는 것도,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힘도, 그 땅의 크고 작은 모든 변화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해 보려 했지만, 결국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한 걸음씩 가는 길임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등 선교를 위한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의 온도는 가는 선교사 못지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땅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저만의 역할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과 세상이 더욱 넓어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선교하며

글 이지웅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동안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뮤지컬 배우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약속했던 고백은 개인의 욕심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걱정 속에 목적을 잃고 달려왔고 너무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비전 트립을 지원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도망치듯 변화가 필요해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출발 전까지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참 많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계획이라 믿으며 지혜롭게 나아가길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 과정 중에 팀원들의 준비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듣고 배우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다짐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성욱 선교사님과 첫 사역지인 파야타스에 도착해 현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반겨 주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첫 일정 후 “왜 선교를 하는가?”라는 선교사님의 질문은 정돈되지 않은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와 같이 선교는 내게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파야타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뛰어 놀고, 개한테 물린 후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5만 원이면 예방 접종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 생활비



라 어쩔 수 없이 죽어 가는 수순을 밟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파야타스 사람들은 한 손에 갈고리를 들고, 쓰레기봉투를 찢어 쓸 만한 물건들을 분류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 역시 부모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힘쓰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선교의 모습을 넘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하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닮고 싶었고, 작은 도움일지라도 온전히 참여하고, 보고, 느끼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나흘째 되던 날, 나익교회 청소년 집회에 참여하여 예배와 찬양을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함께했습니다. 한데 섞여 예배당 앞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심으로 이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선교사님과 아이들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불평과 포기가 아니라 감사한 일을 찾으며 살아가려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릇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선교의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 한 번으로 많은 것이 바뀌진 않았지만 항상 진실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 다시 그 자리로

글 조희성 기자



1



2



3



4

문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청년부 수련회가 '다시, 그 자리로'라는 주제로 2023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양주 크라운해태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청년부 전 부서가 함께한 연합수련회로 박승현 위임목사님과 청파감리교회 담임이자 유튜브 '잘잘법(잘 믿고 자사는 법)'으로 알려진 김기석 목사님이 저녁 집회 강사로, 중앙루터교회 담임이신 최주훈 목사님께서 오후 특강 강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는 예배로 겨울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조를 이루어 진행된 조별 레크리에이션 덕분에 첫 만남의 어색함을 넘어 서로 팀을 이루어 미니게임을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잠깐의 개인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승현 위임목사님이 인도해 주신 저녁 집회는 청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정말 오랜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며

둘째 날에는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은 공동체 게임으로 친목을 다졌고, 최주훈 목사님의 특강과 신앙직설 Q&A코너를 통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나누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기석 목사님의 특강으로 신앙을 점검하며,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서로 수련회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날 박종훈 목사님의 닫는 예배로 수련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부는 하나 되는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밤에도 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새롭게 만

1 성공적인 수련회 마무리

2 다시 만난 뜨거운 기도의 자리

3 청년직설, Q&A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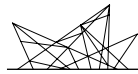
4 봉사의 손길이 돋보였던 팀원들

난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며 다시 그 자리로,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졌던 얼굴처럼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는 용기를 내어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만남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서로가 각자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에 주셨던 말씀들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히나 서로를 향한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이 돋보였습니다. 이미 은혜의 수련회를 경험했던 선배들은 신앙의 새내기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열심의 마음을 담은 손길로 일손을 도왔고, 차량 봉사로 청년들을 태워 오는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각 프로그램들을 고심하여 기획하고 설계한 헌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청년부는 수련회를 통해 옛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2019년 여름수련회 이후로 긴 공백기를 가지며 청년들의 신앙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각각 신앙으로 코로나19의 기간을 보내며 점차 신앙 공동체에 대한 열망, 교회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이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임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는 청년부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청년들은 수련회 이후에도 리마인드 조 모임을 가지며, 각자의 셀 모임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청년부는 다시, 우리가 알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목수로 살기 위해 호주로 간다!

글 조수호(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나는 목수로 살기 위해 호주로 유학을 간다. 일반적인 유학이 아닌 이민을 염두에 둔 기술 유학이다. 목수 유학이라는 무모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무모했던 나의 20대 초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

스무 살 때 군대에 가 스물두 살 늦가을 전역을 하고, 바로 스물세 살이 되던 해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남미와 중미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만약 1천만 원의 돈과 1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가장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여행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을 크게 잡아 한 학기 5백 만 원으로 생각하고 정했다. 나는 매일 이 질문을 고민하며 지냈다.

결국 전역 후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모았고, 한국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떠났다. 1년의 여행은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 외국에서 한인 세프로 일하기도 했고,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 아마존을 경험했다. 빙산 트레킹에 스쿠버 자격증 취득, 스페인어 공부까지 참으로 다양한 일을 했다. 15개국 정도 여행하며 매일 꿈꾸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며 살았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주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것이었다. 작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구의 위대함과 그 위대한 것을 만드신 주님의 '경이로운 세상'에 압도당했다. 경이로운 경험 속에서 여행을 하며 또 꿈을 꾸었다. '외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주님이 만든 이 넓은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싶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도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공장에 들어가서 밀바닥부터 시작해 배우고 싶던 기술을 차근차근 배웠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추가로 부족한 것들을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키워 나갔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생겼고, 그 기회들을 최대한 살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배운 기술은 간판 철골 제작 및 간판

로고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관련 기술이었다.

여행에서 느꼈던 도전 정신과 일에 찌들어 발전 없는 삶을 살 때쯤 여행하면서 꾸었던 꿈이 다시 생각났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외국에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와중에 정말 우연하게도 여행 중 만났던 호주에 사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친구가 인테리어 상담 및 3D 설계를 해 달라고 제안했고, 그 친구의 일을 같이 하며 호주 인테리어 및 그 업계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 친구는 "수호야 너 충분히 호주 와서 일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호주에 대한 꿈을 꾸고 결국 준비 끝에 호주 목수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을 선택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다. 그 꿈이 이번 광성청년부 필리핀 비전 트립 이후 더욱더 단단하고, 확고해졌다. 그 꿈은 외국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것이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보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넘쳐났고, 그 일들을 해야 할 사람이 부족했다. 나는 그 부족한 일꾼으로 쓰임 받길 소망하며 기도로 호주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 생활을 돌아봤을 때 광성청년부 속에서 공동체의 영향력과 큰 사랑을 많이 받아 왔다. 선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공감하며 성장했다. 그 성장으로 인해 나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길 소망한다.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문화산책





여행에서 만난 풍경

작가 노트

나의 어릴 적 기억은 산과 들이 있고, 풀이 있는 목가적인 자연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고향의 추억이 있다. 그 속에서 풀 향기를 맡으며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메마른 도시 생활에서의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단비와도 같은 그리움의 대상이 자연이다. 자연은 항상 시들지 않는 푸름으로 내게 다가오며 가식 없이 천진난만하다.

현대 사회의 경쟁적이고 복잡한 일상은 매일매일 제한된 삶을 반복하게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일탈을 상상하며 꿈꾼다. 이는 일상생활로부터 파생되는 고독감, 고립, 불안, 갈등 요소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마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나는 자연 속의 신선한 청량감과 무기교를 통한 자연과의 교감을 색으로 서정적인 시를 쓰듯 작업하고 있다.



양윤자 YANG YOON JA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개인전 17회,
2023 Amazing Grace 단체전,
인천 아시아 아트쇼, 중견작가 집
중 조명전 등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신비롭다’

개천 따라 산책하다 보면 생명의 경이로움과 마주하게 된다. 대자연은 생명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어릴 때 자주 보던 까마중, 친구들과 우산이라며 꺾어 놀던 바랭이, 물놀이 하는 오리들, 가끔씩 은비를 뒤집는 물고기, 산책하는 반려견, 매미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여름 풀밭의 곤충,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 소리, 음악 들으며 산책하는 사람들, 시냇물 속을 고고히 우아하게 걷는 흰 새, 봄에만 나올 거라 생각한 아카시아 나무 새순들, 아이들 웃음소리... 어느 집 앞의 봉숭아꽃과 만드라미, 강아지풀 위에 새색시같이 앉은 흰 나비, 생명 없는 징검다리...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해야만 했던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생명들은 여전히 생동감 있고 활기차다. 이들의 소리와 몸짓은 희망이다.

이름 없는 풀과 이름 모르는 꽃들...

이름 없는, 힘이 약한 그대들의 편이 되어 주고 싶다.

그들은 약하지만 강하다. 내 마음에 평화와 안식, 기쁨을 준다.

머스타툰

함정현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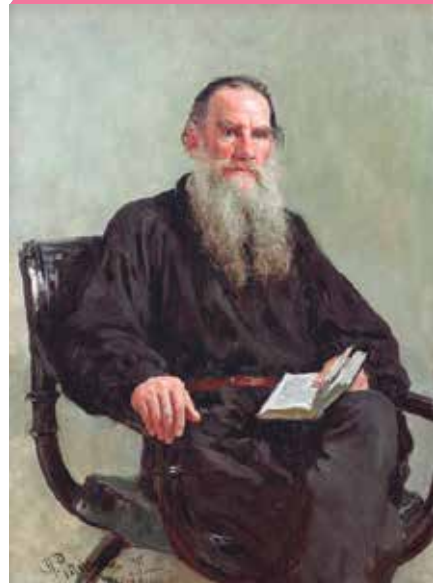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글 김형수 기자(소설가, 필명 김범)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제화공 세몬은 거리에서 벌거벗은 노숙인 미하일을 만납니다. 낮선 그가 두렵기도 하고 그를 도와줄 여유도 전혀 없었지만 차마 그냥 돌아설 수 없어 미하일에게 외투와 장화를 내주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제화공 아내 마뜨료나는 처음 보는 부랑아를 집까지 데려온 남편이 못마땅하지만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는 남편의 질책에 이내 마음을 바꾸고 미하일에게 기꺼이 빵을 나누어 줍니다. 노숙인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곤 세몬과 마뜨료나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중인 천사 미하일은 이 순간 빙긋 웃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수수께끼 1번, 바로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은 까닭입니다. 정답은 사람의 마음속엔 따뜻함, 즉 정(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하일은 세몬 부부와 함께 살며 제화공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거액을 내밀며 최고급 튼튼한 장화를 주문하면서 만약 1년 후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몬을 감방에 잡아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은 또 한 번 빙긋 웃고는 주문한 장화대신 죽은 이에게 신기는 목 없는 신발을 제작합니다. 세몬과 마뜨료나는 아연실색하지만 미하일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곧 관리가 급사했으니 장화 대신 장례식에 필요한 목 없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소식이 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의 수수께끼 2번 정답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이고 정답은 바로 자신의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

세월이 흐른 후 한 여인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세몬을 찾아와 아이들 여름 신발을 주문합니다. 여인은 오래 전 자신이 아이를 잃고 슬퍼할 때 어떤 쌍둥이의 생모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자신이 대신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다는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쌍둥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며 행복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미하일은 쌍둥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쌍둥이 친엄마의 생명을 거두는 일을 맡았던 천사였습니다. 아기들의 장래를 걱정한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가 징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 자란 쌍둥이를 보고 미하일은 마지막으로 빙긋 웃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수수께끼는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고 쌍둥이를 사랑으로 키운 여인을 보고 미하일은 마침내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의 대작으로 빛나는 성공을 거두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러시아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다음 작품에 주목할 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돌연 자신이 지금까지 써 왔던 모든 것, 즉 섬세한 플롯과 유려한 문체, 인간에 대한 깊은 서사를 포함한 귀족 소설의 모든 문학적 기교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대신 민중과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순한 문체의 단편 동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1881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1885년)』, 『바보 이반(1885년)』, 등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아내와의 불화, 당대 혁명 운동의 폭력성과 편협성에 대한 염증, 그리고 그가 오랜 기간 헌신했던 농민 운동의 지지부진함 등이 이런 갑작스런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복잡하고 심오한 소설보다 쉽고 단순한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톨스토이 문학의 절정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쓰던 50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수많은 장편 대작으로 모든 연습을 마치고 톨스토이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짜 소설,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7-8)



WAR ROOM

기도의 힘

글 강혜미 기자

이 영화는 오늘날 많은 전투를 하지만 정작 올바르게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누구에게 대항해서 싸우는지 모른다고,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기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올바른 전략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의 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시작된다.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는 워킹맘이다. 그녀의 남편 토니는 제약 회사에서 제법 잘나가는 영업 사원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열 살짜리 딸 다니엘도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는 부러운 가족의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항상 발이 아프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발 냄새를 달고 다닐 만큼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엘리자베스를 향해 토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이 없다. 여동생의 어려운 사정을 돕느라 계좌에서 5천 달러를 이체한 아내를 향해 내가 당신 수입의 네 배나 더 번다며, 다시는 허락 없이 계좌에 손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는 남편이기보다는 차라리 적에 가깝다. 세상애나, 우리네 모습과 영화 속 그네들의 모습이 어쩔 그리도 닮아 있는지.

결혼 생활에 위기가감이 커지고 있던 찰나 엘리자베스는

집을 처분하려는 고객 클라라를 만난다. 클라라는 '확답해 주신 기도 리스트'를 벽에 걸어 두고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것을 보며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상기하며 격려를 받는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향해 기도 생활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묻는다. 고민 끝에 일정이 많아 뜨겁진 않지만 중간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는 엘리자베스에게 미지근한 커피를 내어 주며 아무도 커피를 미지근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일침을 가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엘리자베스를 벽장으로 안내한다. 벽면 가득히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 벽장은 클라라의 기도실, 즉 워룸(War room)이었다. 삶의 각 분야에 대한 기도 전략을 쓰고, 기도하며 이겨 냈다는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권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만 내준다면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옳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클라라를 향해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서는 엘리자베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단란한 가족 분위기를 가진 친구에게 우리 부모님은 함께 있으면 싸움만 한다고, 너희 집



에 살고 싶다는 말로 부러움을 표현하는 딸을 보며 각성하고 다시 클라라를 찾아간다. 클라라는 남편을 향해 적이라고 말하는 엘리자베스에게 남편이 분명 잘못하고 있지만 그가 당신의 적은 아니라고, 남편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당신의 일이라며 그저 하나님께 간청하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놔두라고 조언한다. 정말이지 클라라가 엘리자베스에게 건네는 충고의 말들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싶을 만큼 주옥같은 대사들이다.

클라라의 도움을 받아 숨어 있기를 원하는, 방해하고, 속이며 주님과 남편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진짜 적, 바로 사탄에게 초점을 돌려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급기야 내 집은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내 기쁨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께로부터 온다고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는 그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당장 주님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그의 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남편의 잘못을 그냥 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기도는커녕 비난의 말로 무장해 남편과 직접 싸우기를 선택했으리라.

이후 토니는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만 예상과 달리 평안한 아내의 모습에 당황하고 만다. 심지어 불법적인 일로 직장을 잃었다고 하는데도 빈정대지 않고 격려하는 아내를 보며 의아함이 커져만 간다. 그러다 발견한 아내의 기도실, 토니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척 간단하다. 우리를 불안과 분노, 우울에 빠지게 해 가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까지 깨뜨리려는 적은 사탄이며,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막강한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이미 설교나 책들을 통해 솔하게 들어왔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야기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는 해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탓이 있는지, 아니면 허구라 해도 그런 삶을 살아 내는 이의 모습을 목격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지점이 있는 영화였다.

우리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은총이 가당키나 했을까?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던가. 엘리자베스가 토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기꺼이 용서의 마음이 들어왔다. 부디 이 영화를 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기를 바란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막연함이 있었다면 이 영화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기도법에 대한 생생한 교본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이기는 전쟁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남방한계선, 군사분계선 세 개의 선을 넘어 판문점을 거닐다

글&사진 전영의 기자

1

방탄 헬멧에 검은 선글라스,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허리에 찬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대치하던 것이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판문점 풍경이다. 마치 판문점 트레이드마크처럼 각인된 이 장면은 더 이상 판문점에서 볼 수 없다. 2018년 9월 남·북·UN사(유엔 사령부)가 '판문점 비무장화'에 합의하면서 꿈꿨던 판문점에 봄이 왔다.

판문점 가는 길

두 달을 기다렸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 가는 길에 오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판문점 견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으로 견학 신청을 했다. 판문점 견학 신청은 방문 희망일 전월 10일부터 '판문점견학지원센터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예를 들어 5월 견학은 4월 10일이 신청일. 매월 10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판문점 견학 신청 창이 활성화되면 순식간에 다음 달 정원이 차는 속도전이다. 나는 두 번의 시도 끝에 기회를 얻어 지난해 9월 판문점을 여행했다.

코스는 임진각 판문점견학안내소 → 통일대교 → JSA 경비대대 → 판문점.

닿을 수 없는 800m

임진각 판문점견학안내소에서 통일부 버스를 타고 통일대교(민통선)를 건너 JSA 경비대대에 도착했다. JSA 경비대대 안보관에서 판문점 견학 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을 교육받고 JSA 장병들의 인솔 아래 판문점으로 향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통행을 폐쇄한 '돌아오지 않는 다리(남방한계선이 지나감)', 800m 거리에서 70여 년 동안 어떤 왕래도 하지 않고 있는 가깝고도 먼 두 마을 '대성동

1 비무장화 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에게도 판문점은 큰 관광 자원이다. 현재 북한군은 코로나로 판문점에서 철수했고, 남한군 또한 방문단이 올 때만 안내 및 보호를 위한 근무 태세를 취하고 있다

2 T2와 T3 사이에 놓인 이 콘크리트 경계석이 군사분계선이다. 오른쪽은 남한 왼쪽은 북한

3 T2 내부, 회의 테이블 중앙에 놓인 세 깃발과 일직선상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난다. T2의 반은 남한, 반은 북한 영토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의 영토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4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이 정하게 산책하며 환담하던 도보 다리

마을과 기정동 마을을 가까이서 봤다.

1953년 8월, 남북은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전쟁을 멈추며 비무장 지대 내에 한 곳씩 민간인 마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생겨난 곳이 남한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다. 두 마을의 거리는 불과 800m. 저녁 먹고 마실 가도 좋을 만한 거리지만 두 마을 사이에 그어진 군사분계선은 70여 년 동안 서로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손수건이 날아가도 주워 올 수 없는 곳

판문점에 도착했다. 그동안 TV나 영화를 통해 눈 익은 파란색 건물 세 동과 자유의 집, 판문각, 북한 초소 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중 언덕 위 흰색 건물이 내 시선을 끌었다. 판문점에서는 절대 북한 쪽을 향하여 손짓하면 안 된다고 JSA 경비대대에서 교육 받은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손가락으로 판문각을 가리키며 인솔 장병에게 물었다.

"저기가 북한이에요?"

"손 내리세요."

장병의 따끔한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파란색 건물 세 동은 T1, T2, T3라고 불린다. T2와 T3 사이에는 폭 50cm, 높이 5cm 정도의 콘크리트 경계석이 놓여 있다. 군사분계선이다.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반대편으로 날아가도 건너가 주울 수 없다. 5년 전 세계의 눈은 이 낮은 콘크리트 경계석에 쏠렸었다. '2018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나들며 평화 무드를 연출했었다.

4

개성 땅을 밟다

군사정전위원회(MAC)의 회의 장소인 T2는 남북 방문객의 출입이 허용됐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 태극기, 성조기, UN사 깃발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깃발이 놓인 곳이 군사분계선이 지나가는 선이다. T2의 반은 남한, 반은 북한 영토다. 밖과 달리 T2 내부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어 모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는 한걸음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심쿵했다. 개성이다. 도라전망대에서 XR 망원경을 통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봤던 그 개성!

골목길을 걸어가는 주민, 농사일이 한창인 농부, 개성 시내 고층 아파트, 개성 공단, 폭파의 흔적을 안고 검게 그을린 채 서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은 품 넓은 송악산까지 눈에 선하다.

언제쯤 그곳을 걸을 수 있을까.

2018년 두 정상이 담소를 나누며 다정하게 산책한 파란색 도보다리, 자유의 집, 평화의 집, 판문각, 통일각 등 그동안 마스크로만 접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직접 보고 걷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음식 가득 싣고 가 고향 청진에서 마을 잔치 열어 주고 싶어요

글 이경희 권사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막내 경희입니다. 스물넷에 떠난 고향, 20년째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도 스무 살씩 더 나이가 들고, 고향의 산과 들도 많이 변했겠지요. 열여섯 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힘이 되어 준 아버지, 언니, 오빠를 갑자기 떠나 한국으로 온 후 가족 생각이 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도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시장에서 예쁜 옷을 보면 가족 생각이 더 납니다. 꽃무늬가 화사하게 그려진 블라우스, 우리 엄마가 보시면 “참 곱다, 고와!” 하셨을 텐데요. 꽃무늬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엄마의 고운 모습을 그려 보니 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윤이 반짝반짝 나는 양복 한 벌 입혀 드리고 싶지만, 두 분 모두 돌아가셨으니 이를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언니, 오빠, 조카들에게도 뭐든 해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돈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언니, 오빠!

저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아들도 잘생겼고 멋집니다. 한국으로 온 후 쉬지 않고 일한 덕에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코로나로 무척 고생했어요. 언니, 오빠는 코로나로 고생하지는 않았는지요? 의료 시설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남한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음식 쓰레기도 넘쳐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갈 수만 있다면 먹을 양식 가득 싣고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서 마을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생각도 않고 매년 미사일 시험을 하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 핵무기를 만드는지 모르시죠?

남한에서는 뉴스를 통해 북한의 상황들을 자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집안의 빨감과 먹을 양식은 있는지 이 막내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항상 식사 시간, 시간 시간마다 우리 가족과 북한 땅을 위해, 그 땅에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굶지 않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니, 오빠!

이 막내는 한국 땅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되어 만나는 날까지 가족들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기를, 삶이 고단하지 않기를. 통일은 그날까지 꼭 살아 계셔야 해요.

이 막내 얼굴 꼭 봐야 해요.

2023년 3월 28일, 막내 경희가



△ 한국에 와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제법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니 북한의 가족이 더 그리워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에게

남한에 와서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다니며 북한 교육의 실태가 모두 거짓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땅에 참전여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김씨 일가의 우상 숭배로 교회가 하나, 둘 모습을 감추었다는 것을. 저는 복음통일의 마중물입니다. 일가친척 하나 없는 저를,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 모두가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단 70년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하며,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과 2천 5백만 북한 동포들을 위해, 복음통일을 위해, 저 북녘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상설 전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산 가족들의 시와 편지.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와 편지속에는 이산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모

나의 시선 속 당신은 묵묵하고 대담한 숨을 고르는
가을날의 서툰 바람이었고,

나의 시선 속 당신은 내리쬐는 띄약별 아래 반짝이지 못하는
무모한 것을 지켜 주는 여름날의 충만한 하늘이었다.

나의 시선 속 당신은 당신의 어여쁜 모든 것들을 내어 주곤,
질게 붙어지는 투박한 노을에 웃음 짓는 어리석은 봄날의 청춘이었다.

바뀌는 계절 속 당신의 호흡만은 유일했다.
겨울이 오고, 비로소 당신의 차가운 입김을 만질 수 있었고,
당신의 뒷모습을 담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모든 계절 속의 호흡을 마시고,
당신의 그늘 아래 숨 쉬는 나의 사계절이 미워졌다.



글 이하음 학생 기자(고1)



캘리그래피

작품

캘리그래피선교팀 공동 작업

이현미 집사, 변애양 집사, 이은경 집사, 차배영 안수집사



짚막하게 전하는 교회 소식

글 김용기 기자

2023년을 뜨거운 은혜로.... 다시 모인 겨울수련회

3년 만에 교회 학교 각 부서의 동계수련회가 열려 뜨거운 은혜를 나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회 학교의 동계수련회가 차례로 열려 학생, 교사, 교육자 모두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새 출발의 시간을 가졌다. 꿈꾸는 다음세대의 주역 고등부는 1월 13~15일 양주시 청소년수양관에서 'REALIGN'을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꿈젠 중등부는 지난 1월 27~29일, 빌드업(Build-up!)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간 겨울수련회를 진행했다. 청년부는 1월 26~28일까지 경기 양주 예달원에서 '다시, 그 자리로'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청년부는 1월 10~17일까지 필리핀 톤도, 파야타스 등 최성욱, 정준 선교사의 사역지를 방문해 현지 사역을 돕고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겨울 비전 트립 '피스 메이커'를 진행했다. 2월 5~8일에는 초등부~고등부 학생과 교사 38명이 참여해 꿈꾸는 다음세대 제주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신년 특새에 이어 온종일 기도회 개최



예배로 새해를 여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와 온종일 기도회가 열렸다. 2023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9~13일까지 정성진 목사와 광승현 위임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정성진 목사는 '기도 돌파'와 '섭리 돌파'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광승현 위임목사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라',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라',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라'를 주제로 2023년 목회 비전을 선포했다.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는 날인 13일에는 온종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온종일 기도회에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회(박예녹 목사), 치유를 위한 기도회(이춘태 목사), 임재 찬양 축제(광승현 위임목사) 등 3부로 나눠 가족 구원과 치유, 성령 임재의 기도와 찬양 시간을 가졌다.

힘겨운 이웃 돕기, 설날 바자회 열려



여전도회 주관으로 설날 바자회가 1월 15일 교회 앞 부스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웃을 돕고, 알뜰한 장보기로 설날 뜻깊은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바자회에는 여전도회 수제품인 한우 사골곰탕과 식혜를 비롯해 떡과 정육, 과일, 밀키트 등 선물과 설날 식재료가 판매돼 인기를 끌었다.

2023년 교회 기관 단체 시무식 열어



거룩한빛광성교회는 1월 2일 오전 7시 광성홀에서 시무식을 하고 2023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교직원, 장로회, 자치회장단, 장터협동조합, 학교법인 광성학원, 해피월드복지재단과 산하 복지관, 지혜모아, 광성평생배움터, 광성심리상담센터 등 교회 관련 부서의 직원이 참석했다.

창립 26주년 기념예배,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거룩한빛광성교회는 1월 8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정성진 목사는 '돌파력(시 18:29)'이란 설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실행력으로 2023년 어려움의 답을 돌파해 나가기"를 권면했다. 이날 창립 기념예배에는 해외 선교사와 개척, 다음세대 교육 선교사 파송식과 모범 부서와 교인, 공로자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교회 학교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다음세대 선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하광성교회, 열린광성교회, 은혜의빛광성교회, 세계로교회 등 네 곳에 7명의 선교사가 파송됐다. 주일 저녁예배에는 광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자 우나이우레초)의 감사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2023년 '전 성도 성경 읽기 프로젝트' 시작



올해 1월 1일부터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돕기 위한 '전 성도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 1년 동안 매일 네 장씩의 성경을 읽어 성경 1독을 마치는 과정이다. 모든 성도가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광승현 위임목사가 직접 성경을 읽는 영상을 제작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면 보다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심자가의 길

크로스로드 선교회

ON 크로스로드 TV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한국 교회를 위해 성길 인재를 훈련하고 세워갈 목적으로 설립하신 단체로
설립 이래 한미준 세라인 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진행함으로
목회개척을 꿈꾸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정성진 목사

*다윗의 물맷돌

한국의교회미래를
All라인 준비하는
SCHOOL

Crossroad Church-planting Center by 크로스로드

F 정기포럼

미래목회환경의 분석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질적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문가적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포럼은 비정
기적 모임으로서 중요 의제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A 아카데미

크로스로드의 유튜브 채널(크로스로드TV)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서신학/ 실천신학/ 인
문학/ 실용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
하고, 미래지향적 목회방향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크로스로드 세미나리는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으로 주로 설
교, 예배, 선교 등의 목회적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전문가를 위한 오프라인

S 세미나리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로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멘토링을 받고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사랑방 에듀살롱

지역모임/ 오프라인

E

C 컨퍼런스

목회개척컨퍼런스와 함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강화방식의 서당프로
그램(신학서당/ 설교서당/ 목회서당)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시
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각각
의 지역적/ 개인적 필요에 따른(선교사포함) 훈련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준비됩니다.

서당 프로그램/ 오프라인

DMZ
해마루촌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기타 사역 *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비밀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CMS 후원신청서

후원단체 정보

* 후원 기관명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 사업자 번호 : 364-82-00287

* 대표자명 : 정성진 대표이사

* 수납요금종류 : 후원금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회원 정보

* 성명(법인명)

* 핸드폰번호

* 주 소

0만원선교회 회원

CMS 자동이체 (아래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 예금주명

* 예금주 생년월일

* 예금주연락처

* 신청인과의관계

* 금융기관명

* 출금계좌번호

* 납부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후원내용

☐ 월 1만원

☐ 기타(운영위원) 월 _____ 만원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20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금융결제원, 국세청, (주)케이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 및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

은행 및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연락처 정보(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
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후원내용

1. 정기 후원금 월 _____ 만원

2. 일시 후원금 _____ 만원

* 기부금 연말정산 가능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WWW.CROSSROAD.OR.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장항동, 메탈릭타워) 9층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3-753130 예금주 :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문의전화 T.031-901-0316

꿈꾸는 다음세대(제1교육위원회) 18개 팀을 소개합니다

제1교육위원회는 2022년부터 ‘꿈꾸는 다음세대(이하 꿈담)’라는 명칭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꿈담은 흔히 교회 학교라 불리는 다음세대 신앙 교육 기관으로 주일에 이루어지는 주일 학교 예배 부서와 평일과 주말에 이루어지는 각종 팀 사역, 열여덟 팀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370여 명의 교사들이 다음세대 약 1,500명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영아부 : 0~3세 / 1부(11시), 2부(12시30분)

태어나 처음 만나는 교회 학교입니다. 부모·교사가 함께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걸음을 가르치는 부서입니다.

유아부 : 4~5세 / 1부(9시), 2부(11시)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워 가는 부서입니다.

유치부 : 6~7세 / 1부(9시), 2부(11시)

예배의 습관을 들이고 신나는 찬양과 믿음의 기도로 다양한 신앙 경험을 쌓아 가는 부서입니다.

꿈꼬통합부 : 4~7세 / 12시30분

12시 30분 미취학 자녀들의 예배와 보살핌을 담당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을 위한 예배 부서입니다.

초등1부, 초등2부 : 8~9세 / 1부(9시), 2부(11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 속에서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는 어린이로 성장케 하는 부서입니다.

초등3부, 초등4부 : 10~11세 / 1부(9시), 2부(11시)

풍부한 호기심과 탐구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 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초등5부, 초등6부 : 12~13세 / 1부(9시), 2부(11시)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자랍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고백합니다.

어린이영어예배부 : 8~13세 / 11시

영어가 익숙한 어린이들이 영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중등부 : 14~16세 / 9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 은혜와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양육, 사랑 넘치는 교제로 건강하고 성숙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고등부 : 17~19세 / 9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 자신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세대선교사

복음화율 3% 미만, 미전도 종족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위해 ‘작은 교회의 교회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본 교회 등록 교인으로 교회 학교 교사 봉사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교사선교사’로, 본 교회 사역자로 청빙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들은 ‘교육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합니다.

빛가득금요꿈찬예배 / 금요일, 오후 9시

매주 금요일 광성홀에서 이루어지는 빛가득금요기도회 시간에 동일하게 다음세대 학생들이 지하1층 지저스아트홀에서 ‘빛가득금요꿈찬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밤 다음세대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등대지기’가 되어 줍니다.



예수배움터기획팀 / 봄, 가을 학기, 매주 토요일

‘예수를 배우는 토요 학교’입니다. 단순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넘어서 ‘예수’를 배우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들은 전문성을 갖춘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섬기며, 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미술 / 그림책 놀이 / 다음세대양상블 / 목공 체험 / 종이접기 / 수어 찬양 / 선교 태권도 / 꿈담워십 등)

어와나 / 봄, 가을 학기,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KJ Versi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신나게 뛰어 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람데오운영팀

꿈꾸는 다음세대의 신앙 교육에서 영상 미디어 사역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별관 1층 코람데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다양한 영상 촬영을 통해 신앙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꿈담연구소

꿈꾸는 다음세대의 신앙 교육 연구 기관입니다. 교회 학교 부서들의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교재 개발, 사역 기획 및 실행을 합니다. 제1교육위원회의 모든 사역자와 부서장들이 연구소 구성원이 되어 활동합니다.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겨자씨.

2023 SPRING VOL.46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 2010년 1월 13일 통권 46호
등록번호 : 고양 라00082
발행인 : 박승현
발행일 : 2023년 4월 2일
인쇄 : 천광인쇄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 이하음, 최아인
청년부 취재기자 :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사진 : 조희성
편집 : 심혜옥, 김형수
책임편집 :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 전영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운정역 창고 스튜디오

www.1takestdo.com 문의 전화 : 010-5873-4589



2023년 1월 1일 오픈

영화, 드라마, 광고, 창고 형 세트장



A동

40평 파출소

파출소 / 지구대(완벽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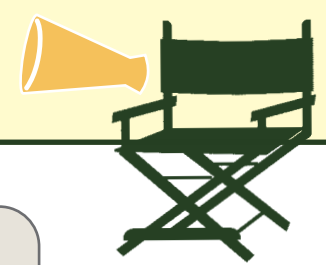
B동

60평 자유 연출 공간

이동식 벽 활용
총 5가지 콘셉트 방 연출 가능



분장 / 대기실



오시는 길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73-2
운정역 900m, 야당역 1.5km

원테이크 스튜디오

OPEN EVENT 시간당

30만원 -> 18만원

2022.12부터 ~ 2023.2월 말 까지

기본 3시간 데크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 특별 추가 할인



사업자 대표 : 이로운 | 사업자 등록번호 : 896-19-01625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3년 준공예정

(2021년 11월 착공)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일산팜」

일산팜은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상표권 등록 완료 | 상표등록: 제 40-1815891 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2023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건축개요

- 1) 건축면적 : 1,464평
- 2) 부지면적 : 2,922평
- 3) 용 도 : 판매시설
- 4) 위 치 : 장항동 565-6 외 (4차선 도로수용후)



■ 본 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동산지점 (031)906-3234 ■ 산들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8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북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 풍산점 (031)906-8666
 ■ 로컬푸드 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